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제임스 김 목사

# 목차

서론	5
죽음의 관점을 가지십시오.	7
성도의 죽음	12
“산자가 이것에 유상하리로다”	16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입니다.	19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	25
내가 죽기 전에 ...	32
“너는 집을 정리하라”	37
죽임 당할까봐 두려워한 이삭	41
죽을 각오	45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	47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48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을까?	56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60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 준비를 해야 할까요?	64
힘을 다하여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75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78
우리가 죽을병에 걸렸을 때와 그 병이 나았을 때	80
나의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85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3가지 이유?	88
수고를 그치고 쉴 것입니다.	92
평안히 눈 감고 싶습니다.	96
다시는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100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104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09
부활의 소망	110
자는 자들에 관하여	113
나의 죽음은 ...	121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21
우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122
새해 첫날 1월 1일 부터 ...	122
인생의 마무리?	123
만일 내가 산소 호흡기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	123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할 텐데 ...	124
죽음으로도 ...	124
죽음	124
"죽음을 명상하는 것에 대해"	125
죽음을 심각하게 경험할 필요가?	125
"당신들에게 이제 다시 살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126
죽음의 관점으로 살자	126
죽음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127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	127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	128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	128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통하여	128
한 순교자의 아내의 일기	129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130
암 환자의 심정?	130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131

죽기 전에 용서하라	131
죽기 전에 화해해야 합니다.	132
안하면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133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133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134
진정 우리는 사랑할 시간 밖에 없습니다.	135
타이태닉호 생존 부선장이 공개한 침몰 뒤에 감춰진 감동적인 이야기	136
한 몽골 자매의 유언장	139
죽음	141
아이들과의 대화	144
첫째 아기의 죽음	145
아빠가 배운 교훈은 무엇이에요?	148
걱정 마세요, 엄마!	150
‘나는 아빠를 화장할거예요’	151
장 할머니의 키스	153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싶습니다.	154
임봉희 할머니	156
손톱깎이	157
양로 호텔 방문	159
편안히 잠드신 고 이진구 성도님	161
큰 고모부	162
주신 때를 놓치지 말아야 ...	164
I will miss him.	165
최분남 할머니	166
고 최분남 할머니를 기억하면서	166
<b>결론</b>	168

# 서론

주님은 저에게 죽음의 관점을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제가 잠시 한국에 나아가 서현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섬겼을 때 저에게 청년들을 향한 마음과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약속의 말씀으로 저를 다시 승리장로교회로 돌아오게 하시사 교회 어르신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고민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께서서는 저로 하여금 교회 어르신들의 장례식 인도까지 섬기게 하시면서 제 자신의 죽음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죽음에 대한 교훈들을 주시면서 저로 하여금 죽음의 관점을 제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로 다시 승리장로교회로 돌아와 교회 어르신들을 섬기게 하시므로 저에게 죽음의 관점을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제 자신에게와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역인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 북과 카카오톡 스토리 등으로 우리 모두가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제 새벽기도회 때 이사야 40장 1절인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한 후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여태껏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죽음의 관점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다 뒤져서 모아 책 원고를 만들어서 지체들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식구나 친구나 형제, 자매를 먼저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주시기 시작한 죽음의 관점을 그들 또한 가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제 블로그에 있는 글들 중 죽음의 관점을 갖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글들을 찾아 이렇게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란 제목 아래 이곳에 다 모아보았습니다. 주로 여기에 있는 글들은 성경 말씀을 묵상한 글들과 또한 짧은 묵상 글들 및 제 개인의 가정 사역과 교회 사역에서 있었던 일들

내용의 글들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제 마음의 소원인 제가 주님의 뜻대로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다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책 원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며 또한 죽음의 관점을 심어주시길 기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8년 8월 1일, 먼저 주님의 품안에 안기신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들을 그리워하면서)

# 죽음의 관점을 가지십시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전도서 7장 2절).**

새해 2008년에 들어서서 저는 벌써 장례식에 두 번이나 참석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사이로 말입니다. 저는 두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다시 한 번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이것을 산자인 제가 유심하는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사랑하는 셋째 삼촌이신 김창혁 목사님께서 담당 의사에 의하면 2-3주 남았다는 소식을 접한 후 다시금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자로서 유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드는 마음은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도전입니다.

왜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지만 한 3 가지만 나눕니다.

**첫째로,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인정하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저는 두 장례식 다 참석하면서 다시금 느꼈던 것은 인간은 흠으로 왔다가 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약 4:14).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 무능력해 보이고 무기력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장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하고 부자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저 같은 젊은 사람은 더욱더

장례식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좀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노력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저는 제 힘을 좀 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제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장례식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좀 초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좀 철저히 초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가오는 죽음이란 것을 생각하면서 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장례식을 통해서라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죽음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342장(“어려운 일 당할 때”)을 종종 즐겨 부릅니다. 그 찬송가 1절 가사와 후렴은 이렇습니다: (1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후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즘 사랑하는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통해서라도 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저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케 하고 계십니다. 저는 세월 지나갈수록 늙어가고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을 접하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더욱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둘째로,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순간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손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채우려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면 다시금 자극을 받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금이나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우리는 장례식 때 마음먹고 결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우리 손에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힘이 없는



분주한 생활을 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빈손으로 무덤에 들어갈 것인데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장례식을 통하여 죽음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땅 위에서의 사는 날 동안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생각하기보다 위에 것을 생각하게 되며 순간적인 것들을 추구하기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님을 깨닫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왜 그럴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죽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상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는 전도자 솔로몬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전 1:2; 12:8). 우리는 이 세상이 다 지나간 후에 오직 영원한 것만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모하며 추구하던 순간적인 것들에게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내려놓기를 배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으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영원한 말씀대로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자 다시금 결심하게 됩니다.

저는 흠으로 왔다가 다시금 흠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이들의 시신이나 그 시신을 담은 관을 보면서 제 자신의 죽음과 장례식을 생각하곤 합니다. 과연 성경 전도서 7장 1절 말씀처럼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전도자 솔로몬 왕은 말하였는데(1절) 과연 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들의 마음에 “김지원” 또는 “제임스 김”이라는 이름이 아름답게 느껴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과연 그들의 마음에 제 이름을 생각할 때 ‘김지원/제임스 김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다가 그가 사모하는 영원한 곳으로 갔다’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도 다가오는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삽니다(엡 5:15). 그 한 예로 지혜로운 사람은 술 취하면서 방탕한 것을 좇지 않습니다(18절). 그 이유는 그는 그러한 삶이 어리석은 삶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17절). 그는 때가 악함을 알고 세월을 아깁니다(16절). 그리고 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힘씁니다(17절). 그러기에 그는 성령 충만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19절). 또한 그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20절).

흘러가는 세월은 너무나도 빠르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는 것이 삶의 이치인가 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그 사실을 무시하고 허송세월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세월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아낄 수 있습니까? 장례식에 참석하여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 것처럼 분주하게 살다가도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에 참석해서는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의 종착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끝마쳐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장례식도 그리 멀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도토리 키 재기 차이일 뿐입니다.

제 나이가 벌써 40이 되었습니다. 평균 삶 수명이 7-80이라면 저는 이미 반은 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언제 저를 불러 가실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왠지 저는 요즘 하루하루 살아감에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해 주셨으니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어드리도록 힘쓰고 내일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오늘과 같은 자세로 살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나 과거에도 집착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또한 너무나 미래를 위하여서 산답시고 이러쿵저러쿵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저는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동행하는 삶이 좋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 밤 죽어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흘러간 세월 어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에서 남겨두신 세월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알 필요도 없음) 그저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김창혁 목사님, 지금 육체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계십니다. 스스로 소파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 하셨던 목사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김 목사님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라고 찬송가 40장 후렴을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힘차게 찬양하셨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의 영혼은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시는 목사님의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에 심히 부족하나마 동참하면서 저는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합니다: ‘살아도 죽은 자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더욱더 전도자 솔로몬 왕의 권면을 받아들여 장례식에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장례식에 가서 산 자로서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끝인 죽음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싶습니다. 심비에 적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음의 관점으로 이 남은 삶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할 때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 후,

제임스 목사 나눔  
(2008년 1월30일)

## 성도의 죽음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소중하게 보신다”(시편 116편 15절, 현대인의 성경).**

고 안덕일 전도사님, 지난 주 토요일(2016년 11월 19일) 오후 12시에 하나님께 임종 예배를 드린 후 가족 식구들이 있는 가운데서 고이 잠드셨습니다. 따님인 진경 자매가 오후 3시 14분에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숨 거두셨어요 편안히 하나님 곁으로 ...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경 자매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안에 고이 잠드셨으니 감사하자.” 저는 그 소식을 접한 후 우리 교회 식구들 카톡 방에다가 전도사님의 잠든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약 10분 후 선교지에 계신 원로 목사님께서 고 안덕일 전도사님을 생각하시면서 교회 카톡 방에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조가 480장 조시 시편 116편 15절 많은 위로주소서(살전 4장 13절로 18절).” 그래서 저는 오늘 고 안덕일 전도사님의 입관예배 설교 본문을 원로 목사님이 주신 조시인 시편 116편 15절로 정하고, 설교 후 찬송을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조가인 480장(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8절은 하관예배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그러한 이유는 저보다 원로목사님께서 안 전도사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위하여 멀리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잊그저께 안 권사님과 진경 자매가 장례 준비하러 여기 한국 장의사를 왔다가 교회에 잠깐 들리셨습니다. 그 때 저는 안 권사님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안 전도님과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했는지 등을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저희 교회에선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신학교에 안 전도사님과 권사님이 다니셨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두 분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2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고인을 “안 전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안 권사님을 통해서 고 안 전도사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 의식이 있으셨을 때 하신 말씀 중에 전도사님이 사랑하시던 저희 승리장로교회를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오늘 고 안덕일 전도사님의 입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편 116편 15절 말씀 중심으로 “성도의 죽음”이란 제목 아래 고 안 전도사님이 사랑하시는 유가족 식구분들과 우리 승리 식구들과 여러분 조문객들에게 우리가 명심해야 할 3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 전도서 7장 2절을 보십시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두 죽을 수밖에 없으니 살아있을 때 이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현대인의 성경). 이 진리는 이미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끝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을 마음에 깊이 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살기에 급급해서인지... 심지어 우리는 죽음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도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사망의 위험”과 “무덤의 공포”를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시 116:3). 그 좋은 방법이 바로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잔치 집보다 초상집, 즉 결혼식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례식을 참석할 때 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기 위해서 입관예배 때는 제 자신이 관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과 하관예배 때는 무덤에 묻히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리 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시편 기자처럼 “내가 이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라는 결심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9절, 현대인의 성경).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소중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6편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소중하게 보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소중(귀중)하게 보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눈에 성도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사 43:4).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서는 존귀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 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사하여주시고 의롭다 칭하시사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12절)라고 고민하면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합니다(16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받쳐 헌신하여(17절)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9절).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다시는 죽음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현대인의 성경). 고 안 전도사님은 약 22년 전인 1994년부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때부터 그 분은 투석을 시작하셨다가 약 11전에 콩팥 이식수술도 받으셨지만 오랜 기간 동안 질병으로 아프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 금요일 점심 즈음에 전도사님이 의식이 있으셨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으로 전도사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주님의 품안에 안기시며 더 이상 아픈 것이 없으시고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사님이 숨을 거두신 후 따님인 진경 자매가 카카오톡으로 ... “마지막 아빠에 모습,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라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진요. 이집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창민 집사님은 교회 카카오톡 방에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승리장로교회 모두 존경스러우신 분이지만, 안 전도사님 병과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고 안덕일 전도사님은 이젠 시편 기자가 자신에게 “내 영혼아, 이제 너는 안식하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7절)고 말한 것처럼 주님의 품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의 죽음은 귀중합니다. 이러한 귀중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 후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 (1절)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 (2절)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 (3절)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 (후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보이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 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새 찬송가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성도의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6년 11월 23일, 고 안덕일 전도사님의 입관 예배 설교)

##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낮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전도서 7장 1-4절).

언젠가 본 한국 YTN 밤 11시 뉴스가 생각납니다. 그 뉴스는 다음 아닌 한국 경기도에 있는 “임종체험관”이라는 데서 실지로 임종을 체험하고자 영종사진도 찍고, 유서도 쓰고 또한 그 유서를 읽고, 자기의 영종사진을 들고 영안실로 가서 유서도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임종 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특히 유서를 읽어 내려갈 때는 대부분 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들은 유서를 읽어 내려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지로 관에 당사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한 사람이 삼으로 흠을 관위에서 천천히 붓는 것이었습니다. 좀 관하고 간격을 뒀서 흠 소리가 나도록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흠 소리를 산 자가 관속에서 들으면 실지로 죽음을 더욱더 체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그 임종체험을 해 본 사람들의 반응은 주로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 과정 속에서 가족 식구들이 제일 많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 임종체험관 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웰 비잉(well-being)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잘 죽는(well-dying) 준비를 하고자 이러한 임종체험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보고 ‘별거 다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해서라도 우리 사람들이 죽음을 좀 더 피부로 느끼고 또한 죽을 준비를 할 수만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2절 말씀을 보면 전도서를 쓴 전도자 솔로몬 왕은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결국”이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2절을



보십시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도 이 기차에서 내려 종착점에 이를 날이 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관점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도자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2절에서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방법이란 바로 초상집에 가는 것입니다(2절). 다시 말하면, 장례식에 가는 것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선 장례식에 가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제 자신의 죽음을 좀 더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종종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례식은 저로 하여금 어떻게 남은 인생을 잘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한 평생을 잘 살았는지는 못 살았는지는 죽은 후에야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살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이름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후에 장례식 때에 내 이름 석 자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칭찬하는지 안하는지 보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모든 사람은 세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1)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2)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는 이름, 그리고 (3) 우리가 얻은 이름. 과연 우리가 얻고 있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내 이름 석 자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 잠언 10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의인의 이름은 죽은 후에 기념할 때에 칭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은 축복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7:1). 이 아름다운 이름은 보배로운 기름과 세상의 부보다 더 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본능은 초상집보다 잔치 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3절의 말씀에 비취 달리 말한다면, 우리는 슬픔보다 웃음을 더 좋아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의 해석에 비취 또 달리 말한다면,

우리 사람들은 육체적 희락에 빠짐을 별세한 자의 유족을 방문함보다 좋아합니다(박윤선). 그러나 이미 전도자 솔로몬 왕이 전도서 2장 11절에서 말하였던 것처럼 육체적 희락(쾌락)은 무익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잔치 집에 가서 세상 적 쾌락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전도자 솔로몬 왕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것은 초상집에 가서 슬픔을 맛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되기 때문입니다(3절).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 문제로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말씀입니다(박윤선).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헛된 세상적 쾌락이나 추구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잔치 집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장례식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 고인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죽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오라하시면 가야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이란 우리 모든 사람의 결국이기 때문입니다(2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과연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을 이 세상에 남기고 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의 마음에, 후손들에 마음에 우리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가야 합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므로 우리 후손들에게 또한 앞으로 장차 우리 장례식에 참석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기억들을 남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례식 때 우리 자녀들이나 후손들이나 심지어 이웃들이 우리 이름 석 자를 생각할 때에 참된 칭찬이 있길 기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길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녀들의 마음에 남기고 떠나고 싶어 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죽음의 관점으로 살아가길 기원하면서)

#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입니다.

## [전도서 9장 2-6절]

혹시 여러분들 “파울 신드롬”이란 말 들어 보셨습니까? “파울 신드롬”이란 남아공 월드컵을 강타한 신드롬으로서 ‘점쟁이 문어’ 파울이 낳은 신드롬을 가리킵니다. 독일 서부 오버하우젠 해양 생물관의 수족관에서 월드컵 경기를 예측한 파울이란 문어의 적중률은 10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결승전과 독일 관련 7경기 등 총 8경기의 승패를 족집게처럼 맞췄다고 합니다(인터넷). 저도 TV와 인터넷으로 이 문어에 대한 기사를 보았지만 참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문어뿐만 아니라 나중엔 점쟁이 악어와 별의 별 점쟁이라는 동물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마 배팅 사업체에서는 이 점쟁이 문어 파울로 인하여 돈을 엄청나게 번 사업체들도 있나 봅니다. 저는 스페인이 월드컵 결승전에서 이긴 후 결승골을 넣은 스페인 선수가 하는 말을 TV에서 보았는데 ‘Long live 파울’(파울이여 오래 살아라)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람들이 점쟁이들을 만나서 점(운세, 사주)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 7장 14절이나 8장 7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우리가 미래를 헤아려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장래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사람의 결국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국인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2-3절을 보면 전도자 솔로몬 왕은 ‘일반입니다’라는 말을 네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이 일반이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결국인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은 우리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데 그 일반적인 결국은 바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2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솔로몬 왕은 의인이던 악인이던, 선인이던 죄인이던, 선하고 깨끗한 자이던 깨끗지 않은 자이던, 제사를 드리는 자이던 드리지 아니하는 자이던 등등 모두 다 결국에 가서는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부인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결국인 죽음이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나 다 동의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동의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후의 결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이 세상(This Age)에서의 결국인 죽음이라는 사실은 동의하지만 죽음 후 오는 세상(The Coming Age)에 대한 결국은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후 오는 세상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던지 영원히 지옥에서 살던지 우리는 오는 세상의 삶을 믿습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비그리스도인들과 달리 오는 세상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오늘도 살아 숨 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 땅에서 죽음이란 사실에 유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죽음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이 땅에서 잘 살아드려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한 2 가지로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2-6절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가득한 죄악들을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솔로몬 왕은 의인이냐 악인이냐 결국 이 세상에서는 그 당하는 일에 있어서 별로 차별이 없으므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이유로 하여 그 평생을 범죄의 기회로 삼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예를 들어, 악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인들도 자기들처럼 별 다를 바 없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악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이 세상에서 죄를 더욱 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범하되 더욱더 담대히 죄를 범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행하는 악한 일에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8:11). 그러므로 악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죄 범하기를 담대히 합니다.

여러분은 만일 여러분의 죽음이 임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만일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6개월, 아니면 길어야 1년 밖에 살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전 한 두 가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반응이란 (1)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려고 시도하던지 아니면 (2) 죽음 앞에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범한 죄들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이 두 가지 반응 중 두 번째 반응보다 첫 번째 반응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죽음 앞에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신자들과 또한 회개치 아니하고 비신자들처럼 죽음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려는 신자들까지 포함하면 첫 번째 반응이 두 번째 반응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하나님을 믿었던 구약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징계)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얼마나 고집을 피우고 목을 곧게 하며 회개하기를 거부했는지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참 더디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죽음 앞에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범한 죄들을 회개하는 사람들보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산다면 오늘 본문 3절에서 전도자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마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기에 앞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죄악들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웨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죽음이란 마치 “X-ray”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Wiersbe). 무슨 말이니까?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 검사를 할 때 X-ray를 찍는 것처럼 죽음이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는 X-ray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X-ray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듯이 죽음이란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있는 가득한 죄악들을 들춰내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란 도구를 사용하셔서라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 안에 가득한 죄악들을 들춰내시고 회개케 하시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한 죄악들을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키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있는 가득한 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면서 남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악을 십자가에 부지런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계속 우리의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이란 사망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한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남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둘째로, 우리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4절을 보십시오: “모든 산 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개”라는 것은 제일 경멸하는 동물이었습니다(Walvoord). 그리고 사자는 우리 알고 있듯이 동물의 왕국에서 왕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 왕은 살아 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었을 때보다 살아 있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왜 죽음보다 생명이 낫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는 올바로 살아볼 기회가 없지만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회개할 기회가 있고 바로 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나은 것입니다.

과연 오늘도 살아 숨 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죽을 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5절을 보십시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 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바 됨이라.” 솔로몬 왕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죽은 자에게는 사랑함도 없고 미워함도 없고 시기함도 없습니다(6절). 이미 죽었기에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다시는 영영히 분복이 없습니다(6절). 한 마디로, 죽은 자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상급을 바라보고 행동할 만한 깨달음도 없습니다(박윤선). 죽은 자는 소망도 없고 그 이름이 잊어버린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산자는 죽을 줄을 알기 때문에 경성하여 새로운 각오로 살 수가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박윤선).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죽을 줄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죽을 줄을 알기에 과연 저와 여러분은 경성하여 새로운 각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 있을 때 우리는 죄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 너무 늦게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때에 회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죽고 나서는 회개할 수도 없고 후회를 할 수도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결국은 다 일반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죽을 줄을 알고 우리 마음에 가득한 죄악들을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는 X-ray와 같은 죽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마음에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산 자들로서 경성하여 새로운 각오로 살 수가 있는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산 자들로서 회개하여 새로운 각오로 주님의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장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십시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라는 말씀을 ...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회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0년 7월 22일, 죽을 때에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지 않길 원하는 마음으로)



##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삼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1, 35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주시고 계시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 인생관 중 하나는 바로 사람은 흠으로 왔다가 흠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제 마음에 심어주시는 관점은 죽음의 관점입니다. 성경 전도서 7장 2절을 보십시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됴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그래서 저는 비록 지금 살아 있지만 장차 다가 올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의 관점으로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지 기도하며, 고민하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사도행전 20장 17-38절 말씀을 새벽기도회 때 전파한 후 기도하는 가운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죽음 후의 세계가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후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이나 교회 식구들에게 심어주고 떠나는 추억들이 있기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남들인 가정, 친척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 등등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이들에게 추억을 남기고 떠나기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인 천국으로 가지만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은 우리에게 대한 추억들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기에 우리의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 죽음이 끝은 아니라는 이 관점을 가지게 될 때 저는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드려야 할지 다시 한 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심어주고 계시는 인생관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인생은 추억 만들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우리는 주어진 만남의 기간 동안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갈 때도 있지만 또한 원치 않는 안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시는 만남 가운데서 상대방 사람에게 어떠한 추억을 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어지는 추억들이 우리가 죽어도 그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 식구들에게 좋은 추억들을 심어줄 수도 있고 또한 동시에 안 좋은 추억들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원치 않는 안 좋은 추억들 보다 주님 안에서 좋은 추억들을 우리 식구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식구들은 우리가 죽어도 그들 삶 속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식구들에게 안 좋은 추억들을 더 많이 심어주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는 죽어서도 그들 삶 속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라는 생각이 들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기도회 때 사도행전 20장 17-38절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한 후 이 아침에 이렇게 다시 본문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히 31절과 35절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구절을 보면 “기억하라”(31절)와 “기억하여야 할지니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35절). 과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삼년간 있으면서(31절)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고(18절) 그들 마음에 어떠한 추억을 심어주었기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기억하라’고 했는지 한 2가지로 다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삼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17절) 그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장로들에게 자기가 삼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했습니다(31절).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를 떠난 후 “홍익한 이리”가 그들에게 들어와서(29절) 그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그러진 말을 하므로(30절) 결국은 에베소 교회 “양 떼”(29절)를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들 중 이단에 넘어가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줄 알았기에 그는 에베소 교회 감독자들인(28절) 장로들에게 자기가 삼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간곡히 권면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심정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좀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바울의 심정을 좀 헤아려보고자 제 가정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가정에 가장으로서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들을 이 세상에 두고 만일 제가 먼저 떠나야 한다면 그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제가 제 아내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세 자녀를 다 맡기고 떠나는 마당에 제가 제 아내에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처럼 권면할 수 있을까 자문해 봅니다. 아마 저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억하시오, 사랑하는 아내. 내가 당신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했던 오늘날까지 시간에 무엇을 심어주려고 했는지 기억하시오. 나는 당신과 우리 세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였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오. 그리고 내가 떠나도 당신이 더욱더 두 배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라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모습이 세 아이들 마음에 심겨질 수 있길 바라오.’ 제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유는 저는 결혼 전부터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게 하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한 2 가지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옵시며 그 상대방 배우자도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아내나 제 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요 14:21).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 아내나 제 자녀들에게 성경을 사랑하며 그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순종해 나아가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책임을 죽음의 관점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가정인 승리장로교회 식구들에게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 이 책임이 막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는 이 아침입니다. 과연 제가 바울처럼 떠난 후 저의 식구들이나 교회 식구들 가운데 사단의 유혹인 이단의 침투와 미혹을 알고 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간절히 권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는 가정과 교회가 돼야 할 텐데, 그래서 어떠한 사단의 미혹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등 돌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잘 해야 할 텐데, 과연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들에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제가 죽어도 과연 제 자녀들과 교회 식구들이 제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기억하고 있는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임스”라는 존재를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제임스”라는 남편, 아빠,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투쟁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저는 행복한 남편이요 아빠요 목사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삼년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전하여 가르쳤던 것처럼(20절) 저 또한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그리고 신실하게 가르쳐야 할 것을 교훈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였던 것처럼(32절) 저 또한 사랑하는 주님의 몸 된 승리장로교회 식구들과 가족들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든든히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저는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육신의 식구들과 영적 식구들인 교회 식구들에게 부지런히 심어주는데 헌신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심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5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삼년을 같이 하면서 범사에 모본을 보인 것을 말씀하면서 그 장로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범사에 모본을 보였다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한 예로, 바울은 자기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습니다(33절). 한 마디로, 그는 탐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탐심 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탐심 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여기서 정반대란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탐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는 자기와 동행들의 쓰는 것을 자기 손으로 일했습니다(34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여 주었습니다(27절). 바울은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전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20절). 그는 에베소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21절). 바울은 입술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으면서 주님을 섬겼다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한 것입니다(19절). 그리고 그는 비록 성령님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22절) 성령님께서 각 성에서 그에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23절)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대한 자신의 각오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24절).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본을 보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기억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삶의 모본을 생각할 때 제 아버님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고 헨리 나우웬의 책 제목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새벽기도회 때 두 번 불렀던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을 놓고 결혼 전부터 기도해 오는 두 가지 기도 제목 중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상대방 배우자가

제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저 또한 그녀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소서' 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오면서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기도하며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그 것이 제가 제 식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기도회 때도 찬송가 518장 특히 4절 “예수 닳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닳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닳기 원합니다 진심으로”를 찬양했습니다. 이것인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사역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닳아가는 자는 살아 있었을 때 예수님의 삶의 모본을 보이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심어준 좋은 추억들이 죽은 후에도 그들의 마음에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죽어도 살아있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시는 아름다운 추억들을 우리는 보배롭게 여겨야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추억들을 마음에 많이 심겨져 있는 사람은 참 축복의 사람이요 참된 부자입니다.

때가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곁으로 가야 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시는 만남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만남들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 나아가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만남들 가운데 안 좋은 추억들이 서로에게 줄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좋은 추억들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 가는데 헌신하므로 그 좋은 추억들로 하여금 안 좋은 추억들을 덮어 나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결국 서로 헤어질 때가 점점 다가올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좋은 추억들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을 서로에게 끼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즉, 우리는 주님을 경손히, 눈물로, 인내로 섬기며 또한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침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이러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짐을 준비해야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순간적인 이별을 준비해 나아가야 합니다.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들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들어내는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후에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죽음 후에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에게 이러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랑하는 양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 내가 죽기 전에 ...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민수기 27장 16-17절, 31장 2절).**

내가 죽기 전에 주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하실 마지막 미션(mission)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 16-17절을 보면 자기 형 아론처럼 죽게 될 것(13절, 현대인의 성경)을 알고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자기의 삶을 연장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참고: 왕하 20:6).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께 그가 그리도 가고 싶었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참고: 신 34장).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민 27:12-13). 그러면 모세가 죽기 전에 원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그가 원했던 것은 한 사람을 이스라엘 회중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회중으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16-17절). 즉, 모세는 자기가 죽으면 자기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이스라엘 회중 위에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죽기 전에 간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모세는 자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생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을 더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조기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생각났습니다. 2-30년, 심지어 40년 넘도록 개척하고 섬기시던 교회에서 은퇴하실 때 자기 자신들보다 교회 양 떼들을 더 생각하시고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조기 은퇴하는 목사님들을 생각할 때 그 분들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퇴하시면 더 이상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실 수 없으실 텐데, 오히려 이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본당 의자에 앉아서 들으셔야 할 텐데, 등등 여러모로 쉽지 않으실 텐데 자기 자신보다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조기 은퇴하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시는 목사님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지도자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세의 마음, 그의 심정은 자기 죽음보다 하나님의 회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17절).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새 지도자를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18-23절).

저는 죽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막 6:34),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마 9:36).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까지 따라온(막 6:32) 많은 사람(33절), 즉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34절).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마9:35)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36절).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기 때문입니다(36절). 이 예수님을 마음을 본받아 가는 저라면 저는 죽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셔서 죽기 전까지 섬기게 하셨던 영적 가정인 승리장로교회 성도님들과 육의 가정인 제 아내와 세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주님의 몸 된 승리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여호수아와 같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새 시대의 주님 중심된 꿈을 가진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승리장로교회를 이끌어 가길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그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미션이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2절).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미션을 모세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들은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브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게 하여 여호와와 회중 가운데에 염병이 일어나게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16절). 여기서 “브올의 사건”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싯딤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모압 여자와 음행하기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들의 초대에 응하여 그녀들의 신들에게 절하며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것(모압의 바알 신을 섬긴 것)을 가리킵니다(25:1-3). 이 브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노하셔서(3절)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염병이 일어났고(31:16) 그 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25:9).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디안 사람들을 원수로 취급하여 그들을 쳐서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17절,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그들은 브올에서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 바알을 섬기게 하고 그 일로 전염병이 번졌을 때 죽임을 당한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였기 때문입니다(18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원수를 갚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도합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켜서 미디안을 치러 전쟁에 보냈습니다(31:3-6). 전쟁터로 보내면서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도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가지고 따라하게 하였습니다(6절,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하나님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박운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밖에 미디안의 다섯 왕들과 또 브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습니다(7-8절).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군이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은 모조리 죽였는데(7절) “발람의 조언에 따라 브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전염병을 퍼지게 한 장본인들”(16절, 현대인의 성경)인 미디안 여자들은 모두 살려졌습니다(15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모세는 군대의 지휘관들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했습니다(14절).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기 전에 주신 마지막 미션을 생각할 때 출애굽기 3-4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가 하면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출 3:10).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습니다(17절). 원래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미션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므리바에서 자신과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민 20:12).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미션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는 것, 곧 미디안을 쳐서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31:2-3). 어떻게 미디안을 쳐서 진멸하므로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이었는지 좀 의아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미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것이었다면 그의 마지막 미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미션을 생각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실 미션이 무엇일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할 때 생각난 말씀은 바로 로마서 5장 10절이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진멸당해야 할 자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저는 모든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알아갈 때에 저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살고 싶습니다(막 10:29).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미션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길 기원합니다.

저는 약 15년 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받고 승리장로교회로 돌아와 담임 목사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특히 교회 어르신들을 섬기게 하시므로 저에게 죽음의 관점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 어르신들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들과 특히 그 분들의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제 자신의 죽음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가정 사역과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 16-17절과 31장 2절 말씀 중심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원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주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와 “내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하실 마지막 미션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저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실 마지막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저에게 주시길 기원합니다.

죽기 전에 가정 식구와 교회 식구를 위하여 축복하길 원하는(신 33:1),

제임스 김 목사 나눔(2018년 2월 24일, 주님께서 그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들을 세우시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길 기원하면서)

## “너는 집을 정리하라”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열왕기하 20장 1절).**

여러분 가정에는 질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지금 성경적인 가정 윤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엡 5:25-30),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며(22-24, 33절), 자녀들은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6:1), 부모님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4절) 있습니까? 왠지 점점 더 우리의 가정들이 콩가루 집안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 유대감이나 화합, 질서가 없고 서로 제 각각 제 멋대로들 살아가면서 가정의 하나 됨을 지켜 나아가지 못하고 분쟁과 분열을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너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까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집”이란 유다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정리하라는 말씀은 왕으로서 하여야 할 국정 인계를 단행하라는 말입니다(박윤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육신의 가정인 우리 각자 집안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집안을 잘 정리하길 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얼마 안 있으면 죽고 살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집안을 잘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정리하되 우리는 마치 히스기야 왕이 죽기 전에 국정 인계를 단행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죽기 전에 신앙 전수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후손들에게) 해줘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 신앙 전수의 책임이 막중

하는가 하고 생각해 볼 때에 저는 만일 우리가 우리 집안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까지 생각합니다. 그 만큼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잘 정리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우리는 이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해야 합니까? 한 2가지로 열왕기하 20장 2-3절에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열왕기하 20장 2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받고난 후 낮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되 그는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3절). 우리도 심히 통곡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 믿지 않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죽음에 가까웠을 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영원한 죽음을 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는 부모가 살아있었을 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죽고 나서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 구원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요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마지막 둘째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해야 합니다.**

성경 열왕기하 20장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간구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것과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길 간구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 내용을 생각할 때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즉,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히스기야 왕은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서 그는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간구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히스기야 왕이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평생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선하게 행했다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게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우리들의 자녀들과 심지어 후손들에게까지 히스기야 왕처럼 말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특히 이사야 38장 1절에서 “네 집에 유언하라”는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서 생각해 볼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죽기 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나는 평생을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도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유언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속히(4절) 응답해 주셨습니다(5-6절). 그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5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로 하여금 삼일에는 그의 병이 완전히 치료되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박윤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삶을 십 오년 더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6절). 그가 이렇게 생명 연장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더욱더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박윤선).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다윗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6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기에(19절) 히스기야 왕은 기도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의 사는 날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었습니다(19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진실이 있길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길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와 온 가정 식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을 행하므로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정리된 가정을 꿈꾸며 세우는데 재헌신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1년 5월 4일,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 죽임 당할까봐 두려워한 이삭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 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우므로 그 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창세기 26장 6-7절).**

어제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알게 된 친구의 아들이 암 투병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친구의 아들이 아직 어릴 텐데 이렇게 암에 걸려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중환자실에 있었던 제 첫째 아기도 생각이 나서 저는 그 친구에게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감사했던 것은 그 친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므로 귀한 신앙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이 친구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제 친구와 제 친구의 부인 자매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할 때 든 생각은 지난주에 찾아빈 암 투병 중인 노회 선배 목사님의 아버님도 생각났습니다. 제가 병원에 찾아보았을 때 그 아버님은 누워계신 아드님 목사님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시면서 또한 머리를 쓰다듬어주셨는데 그 아버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버님이 하신 말씀 중에 현대 의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암은 극복을 못하는 것 같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또 든 생각은 암 수술과 치료 후 회복 과정에 있는 사모님이 생각나면서 선교사님이셨던 부모님도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자매는 지금 검사를 확실하게 받아봐야 하겠지만 암 증상들이 있는데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산지가 오래되어 아무 식구도 없다는 생각을 하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암으로 죽음 앞에까지 가 보신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이 지난주에 카카오톡으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가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명예, 높은 직책, 돈, 큰 숫자 ... 별거 아니더라고요. 큰 목회, 큰 목사, 목회성공이라는

용어자체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가치 있게, 깊이, 행복하게 살고 일하고 가는 게 최고란 것을 암을 통해 선물로 주셨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암이 걸려 죽음 앞에 서 본다면 어떨할 것 같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그 와중에서도 제 친구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6-7절을 보면 죽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이삭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왜 그는 죽임 당할까봐 두려워했나 하면 그 이유는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7절). 아니 어떻게 아내가 아름다워서 남편인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남편인 이삭의 입장에서 그 당시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었겠다 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때 이삭과 리브가가 살고 있었던 곳은 그랄이란 가나안 땅 남쪽 경계선의 서남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6절, 인터넷). 그리고 그 도시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던 도시였습니다(8절).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그랄로 이주한 이유는 바로 흉년 때문이었습니다(1절). 흥미로운 점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들므로 이삭은 그랄로 이주한 것입니다(1, 6절). 그런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처음부터 그랄로 이주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2절). 이 말씀을 보면 아마도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명하시면서(2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3-4절).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께 이 축복의 약속 말씀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로 이주에서 거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아내인 리브가가 아름다우므로 그 곳 사람들이 그녀를 탐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리브가를 자기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7절). 그래서 그는 그 곳 사람들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내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녀는 “내 누이”라고 말했습니다(7절). 아니, 이삭은 리브가는 분명히 자기 아내인데 어떻게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그랄에서 오래 거주하였던 것을 보면(8절) 이삭은 오래 동안 그 곳 블레셋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처럼 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알 수 있는가하면 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말씀은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걸리기 전까지는 그랄에서 오래 거주할 동안 그곳 사람들이 못 보게 자기 아내를 껴안고 아내처럼 대하였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자기 누이처럼 대하였던 것을 좀 짐작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남편이 되어가지고 아리따운 자기 아내가 그녀를 탐하는 그곳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 성폭행 당하던지 강간당하던지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자기가 자기 아내 때문에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한다 말입니까? 그 정도로 이삭은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와 한 몸인 리브가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랄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을 속여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오래 동안 이중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았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걸린 것입니다(8절). 그래서 아비멜렉 왕은 이삭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9절). 그 때 이삭의 대답은 “내 생각에 그(녀)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 이로라”(9절).

이것이 바로 이삭의 생각 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3-4절) 이삭은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의존하여 죽지 않고 살고자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살다가 아비멜렉 왕에게 들통이 난 것입니다(8절).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4절) 하나님께서 이삭이 자기의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 때문에 그랄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생각대로 아름다운 리브가를 탐하여 이삭에게 뺏고자 이삭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삭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생각하고 죽을까봐 두려워하여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좋아하는 거짓말을 하면서 오랫동안 그랄에 거주하면서 그곳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았을까요? 그것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할 말이 없는 것이 그 또한 그랄에서 자기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생각하여(20:11) 사라는 자기 누이라고(2절)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전자전인가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므로

그 해에 백배의 결실을 얻었고 점점 번창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12-13절, 현대인의 성경). 그에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진 것입니다(14절). 그곳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할 정도로 말입니다(14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여 거짓말을 하고 다른 이들을 속이면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삭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은 불신하고 불성실한 이삭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딤후 2:13).

우리도 이삭처럼 죽음 당할까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삭처럼 거짓말을 하며 다른 이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말입니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여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며 생명을 지키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는 진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잠 3:5). 또한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고후 5:7). 만일 우리가 우리 명철을 의지하면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암이라는 질병이 걸렸을 때 이 질병으로 죽을까봐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들이 암이 걸린 제 친구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므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도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삶에 흉년(기근)과 두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히 12:2)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탄과 죽음과 싸워 승리하길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8년 1월 9일, 주님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기원하면서)

## 죽을 각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사도행전 21장 13절).**

싸울 때에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드는 사람은 참 무섭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은 생명을 걸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가 싸우다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무섭게 달려들면 그 누가 막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면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성령님이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그에게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20:23)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결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각 성 중에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인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인 로마인에 넘겨주리라고 예언했습니다(11절). 그리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바울의 일행과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습니다(12절). 그 때 바울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고 말하면서(13절) 자기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말했습니다(13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몸 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관입니까? 어떻게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주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까? 저는 그 이유가 시편 63편 3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바울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었던 바울은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침에 있어서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에 불타올랐던 바울, 예루살렘에서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한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였던 자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 지이다”하고 권면을 그쳤습니다(21:14). 그리곤 바울은 그의 일행과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15절).

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사 53:7).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갈보리 산 십자가를 향하여 사셨던 예수님,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영생)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신 예수님,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빌 2:8).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도였던 바울도 죽음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때 주님께 받은 사명의 중요성과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함을 다시금 도전 받습니다.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복음 전도자,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자세로 주어진 남은 인생 살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타는 전도자와 위로자가 되길 간절히 원하는,

제임스 목사 나눔

(2008년 10월18일, 우리의 철, 팔십 인생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감사하면서)

#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상속자이기에)(롬 8:17)

"현재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18절).

고난을 받되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받을 때에도  
인내하며 견디며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 소망이란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18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족히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18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현재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고후 4:17)과  
족히 비교가 안 됩니다(롬 8:18).

현재의 고난과 족히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23절).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고전 15:52),

우리의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될 것입니다(52절).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빌 3:21).

이 외에도 장차 나타날 내세의 영광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고전 13:12; 계시록 22:4)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할 것입니다(계시록 22:5).

우리는 영원히 빛나는 생활을 할 것입니다(5절).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확신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가운데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015. 9. 17. 수요기도회 때 원로 목사님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신 내용을 요약한 것임]

##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이 내 아들이 하였더라”[(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왕은 가슴을 찢는 듯한 슬픔에 못 이겨 성문 위에 있는 누각으로 올라가서 울며 부르짖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아이고 압살롬, 내 아들이 내 아들이’](사무엘하 18장 33절).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고 있노라 하면 가없고 불쌍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랑하는 자녀 대신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자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자녀 대신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 마음이 심히 아파하는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의 마음이 심히 아팠던 이유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28, 31-32절). 그래서 다윗은 가슴을 찢는 듯한 슬픔에 못 이겨 성문 위에 있는 누각으로 올라가서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아이고 압살롬, 내 아들이 내 아들이”(33절, 현대인의 성경).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은 다윗의 가슴을 찢는 듯한 슬픔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제 첫째 아기 Charis (헬라어로 ‘은혜’라는 뜻)를 중환자실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품에 앉아보고 통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통곡하다가 제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마음이 슬퍼서 큰 소리 내어 울고 또 울었습니다. 특히 저는 제 아이가 저의 죄 때문에 제 대신 죽었다(12:14, 18)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죄책감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 아이가 아니라 제가 마땅히 죽었어야 할 죄인이었는데 말입니다. ㅠㅠ 아버지 다윗은 가슴을 찢는 듯 한 슬픔에 못 이겨 이렇게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아이고 압살롬, 내 아들이 내 아들이”(18:33, 현대인의 성경). 다윗은 자기가 아들 압살롬을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의 심정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평생 우리 마음에 그 자녀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면서 아직도 너무나도 생생한 그 때 그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추억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때 차라리 내가 그 자녀 대신 죽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는 다윗의 이 울부짖었던 내용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에서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했더라면 압살롬이 이렇게 죽는 일이 안 생겼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내내 새벽기도회 때 묵상한 다윗과 압살롬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했을 때 저는 아버지 다윗이 그 때 그 때 이 3가지를 잘했더라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죽기까지는 안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첫째로, 만일 아버지 다윗이 ‘그 때 공의롭게 행했더라면’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암논이 다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을 때(13:14, 현대인의 성경) 심히 노하기만 했지(21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암논은 다말을 욕되게 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12절) 다윗은 아버지로서 암논에게 아무 사랑의 책망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죄악을 범한 아들 암논에게 아무 책망도 하지 않은 것일까요? 만일 그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더라면 그를 징계해야 하지 않았나요?(히 11:7) 그것이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었나요? 강간을 당한 다말의 입장에서 그녀의 아버지인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었을 까요? 특히 자기의 딸을 다말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정도로(14:27) 자기 여동생을 사랑하였던 압살롬의 입장에서 자기 여동생이 배 다른 형제 암논에게 강간을 당한 후 자기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는 모습(13:20)을 보고 있었을 때 그의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었을까요? 혹시 그는 ‘아니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내 여동생이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당했는데도 아버지는 그냥 심히 노하기만 하고 암논에게 아무 징계도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가정의 가장이면 가정에서

공의를 행하므로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지켜 나가야 하지 않나요? 왜 다윗은 심히 노하기만 하고 암논에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는 자기가 과거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동침한 죄가 생각나서 그랬을까요?(11:4) 자기도 목욕을 하고 있었던 밧세바가 심히 아름다워 보여(2절) 그녀가 유부녀인줄 알면서도(3절) 동침하였기에(4절) 자기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13:1) 다말을 자기의 선행으로 그녀를 덮쳐 강간하였는데 불구하고(13:14, 현대인의 성경) 아무 말도, 책망도 하지 못한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다윗 자기 입장이고 강간을 당한 다말의 입장이나 그의 오빠인 압살롬의 입장은 어떠했겠습니까? 처량하게 오빠의 집에서 살고 있었던 다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을 강간하여 악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쫓아 보내는 더 큰 악을 범한 암논(16절)을 미워하여 그와 일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22절, 현대인의 성경). 그 미움 속에서 압살롬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복수였습니다. 압살롬은 2년 동안이나 암논을 죽이려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23절). 누구 책임입니까? 제 생각엔 아버지 다윗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암논이 자기의 딸 다말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기만 하지 않고(21절) 공의롭게 행했다라면 압살롬이 암논을 향하여 2년 동안이나 그를 죽이려고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여동생을 강간한 암논에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으므로 암논은 같은 왕궁에서 아무 일 없었듯이 평안히 사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다면 그 때 압살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세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이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It’s not fair”(공평하지 않아요)였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저희 집 막둥이가 저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그 아이만이 저에게 직설적으로 할 말을 하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ㅎㅎ 얼마 전에도 막둥이는 저에게 언니는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자기도라는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막둥이의 핵심은 아빠가 언니와 자기에게 공평하게 대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제 생각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언니에게 허락했듯이 막둥이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했습니다. 아빠인 제 입장에서 될 수 있는 데로 세 자녀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막둥이 딸이 어릴 때 제가 그림 성경책도 읽어주고 그랬는데 첫째 딸에게는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요즘은 첫째 딸하고 많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딸들을 균형 있게 사랑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는 맏아들은 제가 금요일과 주일에 학교에서 아들을 데리고 오고 또한 데려다 주면서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토요일 오후에는 아들과 그의 친구들과 같이 농구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세 자녀들을 균형 있게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세 자녀들 각자는 저의 그 마음과 노력을 달리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세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세 자녀들을 함께 징계한 것입니다. 누구는 징계하고 누구는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그리했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달리 생각할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 속에서 만일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속히 사랑으로 징계했었다면 압살롬의 마음이 그리고 2년 동안 암논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고자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암논을 향한 압살롬의 미움의 싹이 마음에 자라나지 않도록 아버지 다윗이 공의롭게 대처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둘째로, 만일 아버지 다윗이 ‘그 때 좀 일찍 찾았더라면’ 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쫓아 내버린 암논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기로 작정(결심)하고(삼하 13:32) 2년 동안이나(23절) 복수의 칼을 갈다가 결국에 가서는 암논을 죽입니다(23-29절).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도망하여(34절) 그술 왕 암미훔의 아들 달매에게로 가서 그술에서 살았습니다(37절). 거기서 산지 3년이 되었을 때(38절, 현대인의 성경) 요압 장군은 자기의 주인인 다윗 왕이 압살롬을 향하여 그리워하는 것을 알고(39절, 14:1) 지혜로운 여인 하나에게 다윗 왕에게 할 말을 일러 주고(2절, 현대인의 성경) 그녀로 하여금 다윗 왕에게 나아가게 하여 말하게 하므로(4-20절) 결국에는 다윗 왕이 요압에게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을 허락 받았습니다(21절). 그런데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다윗 왕의 마음이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였고(13:39) 또한 그에게로 향했다(14:1)[그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그리워하고 있었다(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다윗은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3년째 살고 있었는데 그 때에도 찾고 있지 않고 있다가 마음으로만 그를 그리워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망간 자식을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있었다면 아버지로서 그 자식을 속히 찾았어야 했지 않았나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면 모든 힘과 능력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도망간 자식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마음으로만 도망간 자식을 그리워하였을까요? 결국 그술로 도망간 압살롬을 3년 만에 찾은 것도 다윗 자신이 아니라 요압 장군이 먼저 나서서 다윗 왕의 허락을 받아 찾은 게 아닌가요? 어느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을 찾지 않고 마음으로만 그리워할까요? 혹시 그 아버지는 마음으로 그 자식을 용서하지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마음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아서 다윗은 그를 안 찾은 것이 아닐까요? 자기는 목욕하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유부녀 밧세바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려고 사람을 보냈던 다윗이 어떻게 자기 동생을 강간하고 쫓아버린 암논을 미워하여 죽이고 그술로 도망간 압살롬은 3년이나 사람을 보내 알아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을까요? 자식을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마음으로만 그 자식을 그리워하는 아버지는 충분히 그 자식의 마음에 상처와 쓰라림과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 지금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차로 한 45분 거리에 있는 학교라서 제가 금요일마다 아들을 데리러 학교에 갔다가 주일 저녁에 다시 학교 기숙사에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처음에 아들이 대학교 기숙사로 떠났을 때 저는 집에서 그 아들의 빈방을 보면 제 마음이 좀 허전(?)했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집에서 지냈던 기간이 18년이나 되어서 그런지 18년 만에 독립하여 집을 떠난 아들을 생각할 때 이런 저런 그와 함께 했던 추억들이 생각나곤 했습니다. 특히 아들이 대학 기숙사로 들어간 다음부터 집에는 여자 세 명(아내와 두 딸들)만 있으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ㅋㅋ (실제로 저는 막둥이 딸에게 아내 앞에서 그리 말했음. 첫째 딸도 거실에 있으면서 제 말을 들었음 ㅋㅋ). 만일 제 아들이 대학교를 가느라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여동생 중 한명을 죽이고 도망갔다면 저는 아버지로서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리 상상해 본 이유는 아버지 다윗의 심정을 좀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배 다른 형제라 할지라도 자기 형제인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간 압살롬을 향하여 마음으로 그리워했던 아버지 다윗처럼 저 또한 도망간 제 아들을 마음으로 그리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저는 다윗처럼 제 아들을 그리워만 하고 찾지 않을까 아니면 찾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3 비유 중 잃어버린 양 비유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를 보면 저는 도망간 아들을 간절히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 비유(탕자 비유)를 생각하면 저는 아들을 찾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도 들긴 합니다. 물론 이 기다림의 전제도 잃어버린 아들을 아버지가 찾고 찾다가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마음은 죄를 범하고 도망간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찾고 찾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이 알 때에 아버지를 향한 그 자식의 마음은 어떨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내 아버지가 나를 찾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자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충분히 그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쓰라림과 아픔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만일 아버지 다윗이 ‘그 때 용서했더라면’ 입니다.**

2년 동안 암논을 죽이고자 복수의 칼을 갈았다가 마침내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갔었던 압살롬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14:23).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3년 만에 돌아온 아들 압살롬을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자기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24절). 즉, 다윗은 압살롬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24절, 현대인의 성경). 어느 정도로 다윗은 압살롬을 보고 싶지 않아했냐면 그는 압살롬을 2년 동안이나 보지 않았습니다(28절). 아니 아무리 자식이 보고 싶지 않다고 한다 할지라도 3년 동안 못 보던 그리워하던 자식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데 허락했으면 즉시 아들의 얼굴을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얼마나 압살롬의 얼굴이 보기 싫었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압살롬의 얼굴을 2년 동안이나 안보고 살 수가 있습니까? 도합 5년이 아닌가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에서 3년 살 동안도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못했는데(‘안했는데’란 말이 더 적합한 듯)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아들에게 자기의 얼굴을 2년 동안이나 못 보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리도 자식의 얼굴을 보기 싫어했던 것일까요? 말이 5년 동안 자식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이지 실제로 요압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 왕의 마음을 알고 그의 허락 아래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5년 보다 더 오랫동안 자식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가 요압의 발을 붙 질러서라도(30절) 요압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2년 만에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에게 “내가 차라리 그 곳(그술)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라고 말한 것입니다(32절, 현대인의 성경). 아들 압살롬의 입장에서 이 얼마나 잔인한 조치입니까? 3년 만에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아버지 다윗이 자기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2년 동안이나 아버지의 얼굴을 못 보게 하였으니 말입니다. 아니, 자식의 얼굴을 보기 싫었으면 뭐 하러 그술에 살고 있었던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온 것입니까? 그럴 바에 압살롬을 그냥 그술에서 계속 살도록 내버려두던지 말입니다. 왜 다윗이 마음으로 압살롬을 그리도 간절히 그리워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신하 요압이 알 정도로 다윗이 그리도 압살롬을 그리워한 것을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워했던 것 같은데 자식을 찾을 생각도 안하고, 만일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고 있었던 아버지 다윗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압살롬을 보지 않을 것이면 왜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허락한 것일까요? 아예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압살롬은 계속해서 그술에서 살았을 것이고 그리했다면 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자기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의 책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에서 다윗이 제일 값을 많이 치른 죄는 아들 압살롬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피터슨). 다윗은 같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으면서도 약2년 동안 자기 아들 압살롬과 거리를 두고 그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께서 밋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12:13) 자기도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즉시 용서했었다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16:11)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았으므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2년 만에 자기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고 그 뒤로 4년 동안(15:7)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독질하여(6절, 현대인의 성경) 그들의 인심을 다 자기에게로 돌려(13절)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자식을 용서하지 않는 죄의 결과는 결국 자식의 생명을 잃게 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부모는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그 자녀가 가엽고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고통당하는 자녀 대신 부모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라도 부모는 자기 자식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한 부모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식이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것 보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특히 그 자녀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죄책감의 고통은 각자 겪어본 부모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심히 아파 슬픔을 못이길 정도였습니다(18:33). 그 이유는 그는 그 자녀의 죽음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슴을 찢는 듯 한 슬픔에 못 이겨 이렇게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아이고 압살롬, 내 아들이 내 아들이”(33절, 현대인의 성경).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 대신 자기가 죽었더라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압살롬이 죽은 후이기에 다윗은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었겠지만 그는 자신과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를 뒤돌아보면서 적어도 이 3가지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1) ‘내가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고 내어쫓김을 당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노하지만 말고 공의롭게 암논의 죄악을 징계했다면 압살롬의 마음이 나를 향하여 불만이 없었을 텐데’, (2) ‘내가 그술로 도망간 아들 압살롬을 좀 더 빨리 찾았더라면 그가 3년 동안 나를 향하여 상처와 쓰라림과 원망 가운데 살지 않았어도 되었을 텐데’, 그리고 (3) ‘내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2년 동안 그로 하여금 내 얼굴을 2년 동안 못 보게 하지 않고 돌아왔을 때 즉시 용서를 했다면(그리고 그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그가 4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독질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버지 다윗의 군대와 전투하다가 죽은 압살롬을 향하여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 아이고 압살롬, 내 아들이 내 아들”(33절)라고 울부짖었던 다윗을 생각할 때 저는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마27:46, 막15:34).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 된 우리 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영원히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었을 까요? 그리 부르짖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혹시 ‘내 아들 예수야, 내 아들 내 아들 예수야, 내거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아이고 예수야, 내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가슴을 찢는 듯한 슬픔에 못 이겨 울 으시면서 부르짖지는 않으셨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8년 4월 14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세 자녀들에게 공의와 공평을 행하며, 부지런히 찾으며 또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듯이 그 세 자녀들을 용서하며 또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아버지가 되길 기원하면서)

##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을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디모데전서 1장 13-14절).**

이번에 “2017 인터넷 사역 한국으로”를 위하여 한국으로 나아가기 전에 제 마음이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멘토 목사님의 은퇴 과정 속에서 들리는 말들이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연 나는 어떻게 목회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등등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고민이 제 목회 은퇴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과연 나는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 인생을 마쳐야 하는지를 또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마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생각할 때 저는 제 자신 스스로에게 경계해야 할 많은 것들 중에 특히 공로의식을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죽을 때까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수고할 때에 저는 숫자와 제 이력에 민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목회를 했다든지, 그 수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주님을 위하여 행한 일들을 기록하던지, 목회를 마치면서 교회에다가 어느 정도 액수의 은퇴금을 요구한다던지 등등으로 인하여 사람들 앞에서 제 공로와 영광을 들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보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 그 은혜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인생의 끝 부분에 와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딤후 4:6-7)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가운데 저는 한국에 나가서 인터넷 사역으로 알게 된 목사님 한 명을 만났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날인 금요일 아침 그 목사님을 통하여 그 목사님이 보고 듣고 경험한 교회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때 제 평생 처음으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제



가슴이 답답하면서 마음이 멍하였을 뿐만 아니라 울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들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안 그래도 그 전날 목요일 어느 부목사님 부부를 만나 대화하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러한 글을 썼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다음 날 금요일 아침에 또 다른 부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니 울고 싶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안 좋은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교만하여 물질에 대한 욕심 등을 부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3-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특히 2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2 가지란 바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13절)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행 9:4, 26:14)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는 폭행자였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딤후 1:13)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빌 3:6).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그리한 것입니다(딤후 1:13). 그러므로 그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습니다(16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저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살후 1:9). 이렇게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유 1:7)이 저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고 생각할 때(딤후 1:16) 이것이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죄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에게 저의 모든 죄를 전가하시사 저의 죄의 형벌을 받으시게 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죄가 많은 저에게 내리셔야 할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니(롬 9:22) 이것이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저에게 구원이 된 줄 알기에(베후 3:15) 어찌 이 주님의 긍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면,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하나 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딤후 1:14).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자기가 죄수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15절). 그러한 죄인 중에 죄수인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습니다(16절). 주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그에게 영원한 멸망의 진노의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그에게 풍성한 믿음과 사랑과 함께(14절)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16절). 그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12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신 주님께서는 (딤후 2:13)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사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 직분을 맡기셨습니다(롬 11:13).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열심으로 교회에 핍박하던 자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기보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인데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다고 말한 것입니다(딤후 1:12).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베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무엇이관데 저에게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케 하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미쁘신 주님은 저 같은 불성실한 자를 충성되이 여겨 목사의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언젠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 고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이란 그 분은 1992년에 템플턴상을 수상하는 축하행사 때 인사말을 하면서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하고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분뿐만 아니라 고 박윤선 목사님도 집회를 인도하면서 자신의 신사참배를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도 단 한 번이지만 신사참배를 한 범과가 있으므로 나는 언제나 그 일로 인하여 원통함을 금할 수 없었는데, 이때에 그 죄를 회중 앞에 공개백하였던 것이다”(인터넷). 이렇게 자신의 신사참배의 죄를 공적으로 고백한 이 두 분은 제가 보기엔 끝까지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은 과거의 죄를 항상 기억하면서 기록하신 주님께 나아가시므로 그 죄의 크기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에 그분들은 주님의 긍휼과 은혜의 크기를 점진적으로 더 크게, 더 많이, 더 깊이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인 됨을 점점 더 크고 깊게 깨달아 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점점 더 크고

깊게 깨달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은혜 의식으로 총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 의식으로 총만한 그리스도인은 목회 사역을 다 마치고 난 후에도 입술로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전 15:10)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마무리 할 때에도 겸손히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간구할 것입니다(시 115:1).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2017년 12월 13일, 숫자와 공로의식을 경계하며 은혜 의식으로만 더  
욱더 총만하길 기원하면서)

#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네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신명기 32장 50절).**

오늘 새벽에 사랑하는 신학교 동문 목사님의 친구 분의 죽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자택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분이 섬기셨던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본 글은 고 김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아드님(들)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웹사이트 갤러리 부분에 가서 사진들도 보았습니다. 고 김 목사님의 생신이 물론 년도는 저랑 다르지만 생일은 10월 7일, 저랑 하루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목사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교인들의 밝고 환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고 김 목사님의 사모님과 자녀들 또한 교회 식구들 및 동역자들 등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생각하면서 부족하나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새벽기도회 때 읽은 신명기 31장과 32장 말씀 가운데 32장 50절 말씀 중심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행했던 3가지 일들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그 말씀을 비취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금 글로나마 적어 내려가면서 제 자신에게 다시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일은 자기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회중에서 세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신명기 31장 7-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와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민 27:16-17). 그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모세의 권위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18-20절).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22-23절).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나이 120세 때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건너가서 가나안 민족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신 31:1-3).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요단을 건너가실 것이라고 말한 모세는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3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사(6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요단을 먼저 건너가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후 모세는 온 이스라엘 목적에서 여호수아를 불러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7-8절).

저는 죽기 전에 주님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들을 세우시는 주님의 사역에 계속해서 동참하길 원합니다. 저는 추수할 영혼은 많되 일꾼이 적은 이 때에 주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라고 청원하면서(눅 10:2) 더욱더 가능성 있는 추수할 일꾼들을 찾아 세워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길 원합니다.

**둘째로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일은 율법을 써서 낭독케 하여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듣게 한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31장 9-13절을 보십시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와 언약케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칠 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모세는 죽기 전에 율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온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율법을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그들 성읍 안에 거주하는 타국인들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게 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기 하기 위해서 입니다(13절). 왜 모세는 이리 행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는 언약을 어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16절).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16절).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자기 살아서 그들과 함께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는데 하물며 자기가 죽은 후에(2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지면 분명히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것(20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죽기 전에 율법을 써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고 배우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길 원했던 것입니다(12절).

저는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를 강해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강해한 설교를 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제 세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 이야기”를 종종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섬기는 승리장로교회 식구들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및 인터넷 공간의 지체들을 위하여 말씀 묵상(QT)을 글로나마 써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여러 지체들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누므로 혹시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묵상들을 읽는 지체들로 하여금 은혜를 주실지 몰라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죽기 전에 더 노력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의 삶이 되어가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과 형제, 자매들과 전도 대상자 친구들 및 아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예수님의 추억을 심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셋째로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일은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한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31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모세는 죽기 전에 노래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려줬습니다(30절, 32:44). 이 노래의 내용이 신명기 32장 1-43절에 적혀 있습니다. 왜 모세는 이 노래를 써서 이 노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끝까지 읽어주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는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31:19). 증거가 되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먹어 배부르고 살찌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므로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길 원했습니다(20-21절). 그러므로 모세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친 것입니다(22절).

저는 죽기 전에 제가 즐겨 부르던 찬양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들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책으로나마 써서 제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 그리고 여러 형제, 자매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기타를 치면서 그 노래들을 찬양하는 목소리도 녹음하여 제 자녀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 노래들 중 몇 곡은 제 장례 예배 때 제 가족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 및 조문객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세 가지 일은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왕국 일꾼들을 세우는 것, 말씀 묵상 집들을 내는 것 그리고 찬양 간증집을 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되길 기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3년 3월 6일, 이미 잠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생각하면서)

#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사도행전 20장 36-38절).**

“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다”라고 고 김자옥 권사님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이별 준비를 해야겠다.’ 제가 그리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서는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저를 불러 가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 자신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할 때 항상 이별 준비를 조금씩 해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성경 사도행전 20장 36-3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란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17절) 고별 설교(18-35절)를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들이 다 소리 내어 울면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 식구와 이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7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나는 사랑하는 가족 식구에게 항상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 18절을 보십시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현대인의 성경)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3년(31절)이 지난 “지금까지” 자신이 항상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18절). 과연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적어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아왔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있는 3년 기간 동안 그 교회 성도들에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알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18절). 저는 이 말 속에서 “항상”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잘 알 정도로 바울은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항상”,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또는 신실하게 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가족 식구와 언제 이별할지 모르겠지만 그 날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처럼 신실하길 원합니다. 진실하신 주님께서 저 같은 불성실한 죄인에게도 행하시는 것처럼 저 또한 그 은혜의 힘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되 제가 죽고 나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를 생각할 때 ‘내 남편/우리 아빠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오셨어’라고 저의 삶의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물론 사랑하는 식구가 저의 불성실함을 제일 많이 보게 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내 남편/우리 아빠가 그나마 일관되게 살아왔는지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게 된다면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죽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식구에게 일관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들 마음에 저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나타난 주님의 신실함 모습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나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보십시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현대인의 성경)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3년 동안 거하면서 항상 신실하게 행하였던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19절). 그는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 사실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18절).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3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신실하게 섬겼는지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들에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고 말했습니다(19절). 그는 겸손히 섬겼을 때 괴로운 일이 많았을 텐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일깨워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31절). 그의 눈물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3년 동안 흘렸던 그 눈물을 보고 기억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자기들을 사랑하여 신실하게 3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섬겨준 바울의 그 귀한 눈물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혹여나 그의 가르침과 훈계는 잘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흘린 그 눈물은 평생 잊지 못하고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견디는 가운데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기므로 주님을 섬겼던(19절) 바울을 생각할 때 작별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7절을 보면 성경은 그들은 다 크게 울며 바울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바울을 떠나보내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다 크게 울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눈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이러한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1987년도 5월 승리장로교회 대학부 수련회 때 흘렸던 세 종류의 눈물인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고 헌신의 눈물을 더욱더 흘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 눈물을 보고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하심 따라 눈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더욱더 결심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할 때 주님 안에서 이러한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이별을 사랑하는 가족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가 저의 죽음을 생각할 때 ‘내 남편/우리 아빠는 평생 주님만을 섬겼어요. 주님을 겸손히 섬기면서 괴로운 일이 많으셨을 텐데도 오래참고 견디시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저도 내 남편/우리 아빠처럼 평생에 주님만을 섬기고 싶어요’ 라고 결심을 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은혜요 유익한 죽음입니까?

## 셋째로, 나는 사랑하는 가족의 유익을 구하고 싶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 20-21절을 보십시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했으며 또 대중 앞에서나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것을 가르쳤고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든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되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으면서 섬겼습니다(19절). 특히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20절). 그가 거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21절).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것입니다(24절). 즉,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습니다(27절).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했을까요? 왜 그는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거리낌이 없어 전하고 가르쳤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은 “...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였기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유익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어느 남편/아버지가 가족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더 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고자 그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양은 저는 남편/아버지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사랑하는 가족 식구를 양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세 자녀를 양육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성경 에베소서 5장 29절과 6장 4절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는 어떻게 저의 가족을 양육해야 할까요? 저는 제 아내와 세 자녀를 제자 삼아야 합니다. 저는 가정의 영적 교사로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마 28:19). 그렇게 하는 목적은 그녀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물론 그 이전에 제 자신이 매일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야겠지요). 그리할 때 저희 부부는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벧전 1:22). 또한 저는 제 세 자녀들의 영적 교사로서 그들에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양육하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엡 6:1).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2절) 다른 어른들도 공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의 영혼이 범사에 잘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요삼 1:2). 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 아내와 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나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명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삶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했습니다(22절). 그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자기에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23절).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24절). 그는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완성) 함에는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님께 두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1987년도 승리장로교회 대학부 수련회 때 주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요한복음 6장 1-1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 감화하셔서 저로 하여금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와 같이 턱없이 부족한 제 인생을 항복하고 주님께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목사가 되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제가 받은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2003년도에 한국교회갱신목회자협의회(교갱협) 수련회 때 주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때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란 주님의 말씀을 받은 후 새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를 찬양할 때 승리장로교회를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피 흘려 주님이 사신 사랑하는 승리장로교회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그 해 11월 말에 한국에서 섬기던 서현교회를 사임하고 12월 3일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12월 21일에 승리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요 6:1-15)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마 16:18). 그리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을 세워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저는 가정에서 지도자로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세워야 하며 또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을 세워야 합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게 끝까지 잘 감당하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들이 저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우리 아빠가 주님께 받은 사명에 이끌림을 받아 경손히 신실하게 잘 감당하다가 그가 그리워하던 주님의 품안에 안겼어요.’

**다섯째로, 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현대인의 성경)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28절). 그가 그들에게 이리 말한 이유는 바울은 자기가 떠난 후에 외부적으로 사나운 이리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29절). 그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내부적으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알았습니다(30절). 그랬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31절). 그런 후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주님과 및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겼습니다(32절, 현대인의 성경). 그가 그리한 이유는 그 말씀이 그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32절). 상상이 됩니까? 교회 장로들(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인 장로)이 하나 은혜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교회 양 떼(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적으로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믿음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려는 극심한 유혹 가운데서 온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를 두고 이 세상을 떠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종종하게 된 이유는 한국 서천교회에서 젊은이들 사역을 하다가 미국 승리장로교회로 다시 돌아와 노인 사역을 하면서 그 어르신들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관점을 더욱더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관점으로 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장차 어떠한 죽음을 맞고 싶은지를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저는 주님이 주신 사명에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주님 앞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제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과연 제가 이 세상을 떠나면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의 삶은 어떠할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텐데 등등 이런 저런 생각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사랑하는 제 가족을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벧전 5:7)고 말씀하고 있듯이 저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제 가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족을 맡기되 특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라는 교훈을 받습니다(32절). 그러기 위한 저의 책임은 제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24절)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제 식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제가 이 세상을 떠나도 저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든든히 세움을 받아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32절, 현대인의 성경).

**여섯째로, 나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탐심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 33-34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현대인의 성경)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33-34절,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탐심을 자극하는 물질의 유혹이 많아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혹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게 한 은장색 데메드리오(19:24)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돈으로 유혹 할까봐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혹시 그것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시험”(20:19) 중에 하나는 아니었을까요? 만일 그러한 시험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있었다면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으므로 자기처럼 그러한 탐심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라(골 3:5)고 충분히 권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도 자신들의 장로들의 탐심이 없는 모습을 보고 탐심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울처럼 열심히 일해서 손수 벌어서 쓰는 것이 아니었을까요?(행 20:34)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진정으로 자기들의 이웃인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모세의 십계명에 명하고 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출 20:17)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처럼 부지런히 일을 하여 손수 돈을 벌어서 썼을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돈에 탐심이 없이 깨끗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귀한 모범된 신앙생활입니까?

약 19년 전 아버님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저의 고민을 나눴을 때 아버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물질을 초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내와 장모님과 함께 결혼 예물인 가구들을 사려고 보러 다닐 때였습니다. 장모님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딸인 아내의 결혼을 약 10년 동안 기다려 결혼시키려고 준비하셔서 저희 부부에게 결혼 예물로 가구를 좀 비싼 것으로 사주시길 원하셨는데 제 아내가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저렴한 가구를 사고 싶다고 하여 두 모녀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두 자매님 사이에 제가 끼어 어찌할 바를 몰라 제 아버님에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쭙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는 장모님이 이기셔서(?) 저희 부부에게 과분한 가구를 사주셨습니다. 또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결혼 한지 얼마 안 되서 아내가 어떻게 전도사가 갈비를 먹을 수

있느냐는 식으로 저에게 말한 것입니다 ㅎㅎ. 아마도 아내 입장에서는 전도사가 비싼 갈비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ㅎㅎ 그렇지만 결국에 저는 갈비를 먹었습니다. 검소하게 산다는 것, 물질을 초월해서 산다는 것, 물질의 유혹에서 자유를 누리는 마음, 탐심이 아닌 주님 한분만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 바울처럼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다(빌 4:11-12).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주님 한분만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지 않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제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내 남편/우리 아빠는 탐심(욕심)이 없이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시다가 잠드셨어’라고 생각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일곱째로, 나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모본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현대인의 성경)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모본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탐심을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주 예수님의 말씀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하심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35절). 그랬기에 바울은 탐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자신과 자신의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34절). 그 뿐만 아니라 바울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35절). 이러한 모본을 보였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들도 자신의 모본을 본받아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35절).

저는 제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앞모습보다 뒷모습으로, 말보다 행동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인지 사랑하는 저의 세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아빠의 뒷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진리의 모본”(롬 2:20)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저는 눈을 감아도 사랑하는 자녀들은 영의 눈을 뜨고 저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벧전 2:21). 특히 일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므로 사랑하는 가족 식구에게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 식구의 마음의 새겨진 저의 발자취로 말미암아 그들도 그 발자취를 따를 수 있길 기원합니다.

이번 주 TV 뉴스에서 마음을 몽글하게 하는 소식 하나를 접했습니다. 9/11 사건으로 소방관이었던 아버지를 잃은 한 미국 여자(Josephine Smith)가 아버지가 죽은 13년이 지나서야 자기의 아버지의 발자국(her father's footsteps)을 따라서 시험과 고된 훈련 과정을 다 마치고 뉴욕시 소방관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두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그 Smith라는 소방관이 소방관 모자와 옷을 입고 어느 빌딩 사닥다리 위에서 환하게 미소를 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장면은 그 여자의 죽은 아버지의 사진입니다. 그 아버지의 인상이 참 좋아보였습니다. 47살 때 9/11 사건으로 사망했으니까 그 때 Smith라는 그의 딸은 고등학생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때 사춘기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으면 소방관이었던 아버지를 이어서 자기도 소방관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본받아 소방관이 되어 뉴욕시를 섬기는 Josephine Smith란 여인을 생각할 때 저 또한 제 사랑하는 세 자녀들에게 더욱더 본이 돼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겨 습관화함으로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모든 탐심을 계속해서 버리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이끌려 겸손히, 신실하게 오래 참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뒷모습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유익되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 날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므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좇을 수 있는 아름다운 발자취를 그들의 심비에 남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인 딜런과 예리와 예은이를 생각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2014년 11월 21일. 나에게 본이 되시는 양가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기원하면서)



## 힘을 다하여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 베드로가 힘 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마가복음 14장 8, 31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례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신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묵상(QT) 제목 “힘을 다하여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십시오”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마 결혼 전인 형제, 자매들에게는 좀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힘을 다하여 결혼식을 미리 준비할 시기이지 장례식을 준비할 시기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어느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는지 아마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노인들보다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산다는 생각 아래 자신들의 장례식보다 결혼식을 더 많이 생각하며 힘을 다하여 준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인들은 어떻게 상상해 봅시다.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들 말하시지만 과연 장례식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힘을 다하여 준비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삼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노인들이 “빨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The Art of Dying”(저자: Rob Moll)이란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의료 기술이 점점 더 발달해가면서 사람들이 전보다 더 오래 살기에 살고자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죽을 준비에는 초점을 잘 맞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죽는 법을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잘 사는 법 또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데 말입니다(시 116:15).

저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 읽다가 오늘 본문 8절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삼년이나 쫓아다녔다는 사도 베드로는 “힘 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하면서(31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는데(마 16:23)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이 여자는(막 14:3)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사실(8절)에 좀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저 여태껏 옥합을 깨뜨리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스쳐 지나갔었는데 이 여자가 “힘을 다하여”(8절)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는 사실과 베드로가 “힘 있게”(31절)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대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8:31)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마 16:22)로 항변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자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습니다(막 14:8).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 반면에 그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반면에 베드로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막고자(참고: 마 16:22)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마 26:51).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힘 있게[“저주하며 맹세하여”(74절)]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누가 주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힘을 다하여 자신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여자를 생각하시면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막14:9).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힘을 다하여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장례식을 힘을 다하여 미리 준비하고 싶으신 마음은 없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 삶을 내 뜻대로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하겠지만 또한 잘 살기 위해서 죽을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을 준비를 잘하기 위해선 우리는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신부된 교회는 힘을 다하여 미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과 등불을 들고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부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엡 5:27)로 잘 준비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재림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0년 10월 22일,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장인 어르신을 생각하면서)

##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56편 8절 상반절).

제 마음의 병에 고요 있는 눈물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눈물입니다. 아직도 그 흘리는 눈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의미가 있는 눈물입니다. 제 마음에 제일 깊이 적혀 있는 눈물은 첫째 아기 주영이의 눈물 한 방울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알아보았던 주영이가 제 품안에서 편히 잠들었을 때 그녀의 오른쪽 눈가에는 한 방울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55일 동안 수많은 바늘 자국이 있었던 그 아기를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때마다 그 아기의 눈물 한 방울이 제 마음을 몽클하게 하곤 합니다. 제 마음에 두 번째로 깊이 적혀 있는 눈물은 사랑하는 제 아내의 눈물입니다. 우리 주영이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심장의 문제와 피 순환이 안 되어 온 몸이 시퍼렇게 되어 위독할 때 그 아기를 보면서 좀 떨어진 곳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고 있었던 아내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때 만큼 저는 아내가 아름답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또 잊지 못할 아내의 눈물은 주영이의 시신을 화장한 후 뺏가루가 들어있는 조그마한 박스를 들고 아내와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나아갔을 때 갑자기 아내가 배 뒤에서 그 배를 조정하고 있었던 저를 쳐다보면서 “Titanic”이라고 말하면서 줄줄 흘렸던 눈물입니다. 저는 그 슬픈 와중에서도 농담(?)하는 아내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제 마음의 병에 있는 또 하나의 눈물은 저의 할아버님께서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주일 아침 제가 기도를 드린 후 눈을 떴을 때 할아버님 오른쪽 눈가로 흘리셨던 눈물입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셨기에 아무 말씀을 하실 수 없으셨지만 그 흘리셨던 눈물을 잊지 못합니다. 또한 저는 저의 할머니의 눈물을 잊지 못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할머니를 방문했을 때 할머니가 갑자기 우시 길래 저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죽음이 두려우셔서 우시는 거예요?’라고 여쭙보았을 때 할머니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우신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리도 감사하세요 라고

여쭙보았더니 할머니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서 여러 명의 주님의 종을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시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서 흘리셨던 그 분의 눈물도 제 마음의 병에 고여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태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의 병에 고여 있는 눈물만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오늘 새벽기도회 읽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시편 56편 8절 말씀에 제 시선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께 “주님은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현대인의 성경)라고 간구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전에도 여러 번 이 성경구절을 읽었을 텐데 어제 저녁 전까지는 저는 그 성경구절을 그냥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새벽기도회 때 시편 56편 4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시금 8절 말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이렇게 다시금 묵상하면서 글을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의 관심이 제 마음의 병에 고여 있는 눈물보다 주님의 병에 담겨진 사랑하는 이들의 눈물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아니, 제 마음의 병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눈물이 이미 주님의 병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저보다 훨씬 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 그 눈물을 다 받치길 원합니다. 첫째 아기 주영이가 흘렸던 눈물이나 제 아내가 흘렸던 눈물, 또한 저의 할아버님과 할머니가 흘리셨던 그 눈물의 의미를 어찌 제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충분히 다 알고 계시고 또한 다 이해하시기에 저는 제 마음의 병에 있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모두 다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가 1987년 5월 대학교 때 저희 승리장로교회 대학부 수련회 때 흘렸던 세 가지의 눈물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길 기원합니다: 회개의 눈물, 헌신의 눈물 그리고 감사의 눈물. 지금도 또한 앞으로는 저는 이 세 가지의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길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병에 이 눈물로 채우길 원합니다.

# 우리가 죽을병에 걸렸을 때와 그 병이 나았을 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이사야 38장 9절).**

만일 여러분의 담당 의사가 여러분을 조직 검산 한 후 여러분에게 ‘암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암 초기가 아니라 암 4기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암4기라고 하면 주로 우리는 암 말기로서 ‘이젠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암4기가 암 말기요 이젠 죽는 것입니까? 만일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이사야 38장 9-20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죽을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그 죽을병에서 나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그 교훈들을 받고 우리가 직접 실천에 옮기므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 교훈은 우리가 죽을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죽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성경 이사야 38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여년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1절). 한 마디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사망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망선고를 받았을 때 사람의 본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은 사망선고를 받을 때에 부인하기보다 죽음을 직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준비하므로 죽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둘째 교훈은 우리가 죽을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회고해야 합니다.**

성경 이사야 38장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뵈옵지 못하리니 생존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뵈옵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께 사망선고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삶을 회고하였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다시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인생을 뒤돌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뒤돌아 볼 때 우리는 다시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였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같이 사랑하였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셋째 교훈은 우리가 죽을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생사는 주님께서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이사야 38장 12-13절을 보십시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걸음 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베를 걷어 말음 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 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 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 간에 마치리이다.” 여기서 히스기야 왕은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한 마디로 생사는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담당의사 선생님이 사망선고를 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선고를 내리셨다면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서 끊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람이 우리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는 아니 됩니다. 생사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넷째 교훈은 우리가 죽을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눈이 쇠하도록 주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성경 이사야 38장 14절을 보십시오: “나는 제비 같이, 학 같이 지저귀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양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사망선고를 받은 후에도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슬피 울며 간구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망선고를 받은 후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간구했습니다(2-3절). 그는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님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간구하면서(3절)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16절). 한 마디로, 히스기야 왕은 슬피 울며 자기의 눈이 쇠하도록 주님을 양망했습니다(14절). 우리도 사망선고를 받은 후에라도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슬피 울며 통곡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도 있기에 우리는 죽을병이 걸렸을 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섯째 교훈은 우리가 죽을병에 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경 이사야 38장 1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각근히 행하리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눈이 쇠하도록 양망하면서 통곡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신 후 그의 수한을 십 오년 더하셨습니다(5절). 이렇게 생명을 연장 받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곧,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친히 이루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15절).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여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병에서 나음을 받은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15절).

**여섯째 교훈은 우리가 죽을병에 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우리는 사람의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이사야 38장 16절을 보십시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소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죽을병에 들었다가 나음을 받은 후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의 영혼의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신8:2).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일곱째 교훈은 우리가 죽을병에 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우리는 죽을병이라는 큰 고통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이사야 38장 17절을 보십시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을병이라는 큰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히스기야 왕은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자신의 죄를 사하시므로 자신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죽을병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사함)이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우리는 질병의 치유보다 죄 사함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사함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야 합니다.

**마지막 여덟째 교훈은 우리가 죽을병에 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성경 이사야 38장 18-20절을 보십시오: “음부가 주께 사례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질병에서 구원 받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게 됨을 감사하게 여깁니다(박윤선). 히스기야는 죄에서 구원 받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므로 찬양합니다.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성도는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찬양을 드리길 기원합니다.

죽을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랑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2011년 7월 30일, 지금도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영혼들  
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 나의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현대인의 성경) “그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죽을 때가 다 되었다. 너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성막으로 오너라. 내가 그에게 지시할 것이 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성막으로 들어가자”](신명기 31장 14절).

오늘 조금 있으면 저는 어느 권사님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그 권사님은 지병으로 몇 년간 고생하시다가 평안히 잠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권사님의 남편이 되시는 장로님께서도 그리도 지극히 정성껏 부인되시는 권사님을 돌보셨다고 합니다. 어느정도였나면 그 장로님의 사위에 의하면 참으로 “사랑의 수고”였다고 합니다(살전 1:3). 그런데 잠시 장로님께서 결혼식에 참여한 후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권사님께서 잠드셨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생각해 볼 때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어젯밤 아내의 잠든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좀 아픈 아내가 얼마나 피곤하였기에 제가 들어와 불을 키고 책을 읽는데도 그리고 잘 자는지, 저는 아내의 자는 모습을 보면서 만일 아내가 먼저 제 곁을 떠나면 내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매우 슬프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는 죽을 때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데리고 성막으로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14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죽을 때가 다 된

모세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들어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죽을 텐데 그는 자기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한 길을 떠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노하게 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29절). 그가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16-18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20절, 32:15)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모든 악행을 범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얼굴을 숨기시며 그들로 하여금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임하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31:27). 모세는 자기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므로 후일에 재앙을 당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29절). 이러한 사실을 알고 모세는 자기의 죽을 때가 다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이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특히 살아생전에도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흐지부지 하면서 자신들 때문에 억지로라도 교회를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신들이 죽으면 이젠 자녀들이 아예 교회를 떠나 세상적인 사람들로 살아갈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하실까요? 제대로 그 분들이 편안히 눈을 감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32:36).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므로 남은 것이 없어(36절) 실족할 그 때에(35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3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속죄하실

것입니다(43절).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인 우리 자녀들은 즐거워할 것입니다(4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종말을 분별케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29절).

무릎을 꿇고 숨을 거두신 고 이복희 권사님의 장례 예배를 통하여 나의 죽음의 순간을 생각해 보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6년 3월 7일, 하나님께 영혼 구원을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3가지 이유?

## [시편 23편 말씀]

지금 여긴 주일 저녁입니다. 밖에는 제가 좋아하는 빗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저는 교회 목양실에서 힘을 내어 지난 금요일 사랑하는 고 안덕일 전도사님에게 권면했던 시편 23편 말씀을 오늘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 때 선포한 후 이렇게 다시금 글을 적어내려 가고 있습니다. 아까는 말씀 목상 제목만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3가지 이유?”라는 제목만 적어 놓고 말씀 목상을 적어 내려가지 못했는데 이렇게 힘을 얻어 홀로 목양실에 있는 컴퓨터 앞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내려 갑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고 안덕일 전도사님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저에게 주신 3가지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고 둘째로는, 고 안덕일 전도사님을 추모하기 위해서이며, 마지막 셋째로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고 안덕일 전도사님의 따님에게 카카오톡으로 “목사님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아빠 오래 못계실듯해여”란 메시지를 받고 저는 부랴부랴 전도사님이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2층 중환자실에 계시던 전도사님은 1층인 comfort care(호스피스)로 옮겨 병실 침대에 누워계셨습니다. 부인되시는 권사님과 따님과 한국에서 급히 오신 전도사님의 여동생 분과 병실에 계셨고 저는 전도사님이 누워계신 침대로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때만해도 전도사님은 의식이 분명하셔서 제가 하는 말도 다 알아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다가 성경 시편 23편을 전도사님에게 읽어드린 후 전도사님께 3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저는 전도사님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호스피스 병실 침대에 누워계신 안 전도사님께 칠, 팔십 인생을 뒤돌아보시길 권면하였습니다. 비록 산소 호흡기를 얼굴 전체에 쓰고 계시고 여러 약들을 투입하고 계신 상태에서 고통 중에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는 전도사님께 인생을 뒤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베풀어주신 풍성한 은혜를 생각해 보시길 권면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전도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크고 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전도사님의 마음에 그 은혜가 넘치길 기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 다윗처럼 전도사님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있으시길 기원하였습니다.

**둘째로, 저는 전도사님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안 전도사님께 시편 23편 1절이 원어 히브리어로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적혀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후 저는 이 말씀을 금년 6월에 안식년을 맞이하여 한국에 나아갔었을 때 서현교회에서 알게 된 고 박진영 자매의 남골이 있는 남골당에 가서 진영 자매의 언니와 남동생과 종미 자매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전했다고 전도사님에게 나눴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고 안덕일 전도사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교훈은 새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 다 가도록” 2절 가사 중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안 전도사님께서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를 주셨고 저는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엿보게 되었으므로 저 또한 시편 기자 다윗처럼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저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안 전도사님과 함께 고백을 하길 기원하였습니다. 특히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기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빌4:11-12)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길 기원하였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저는 전도사님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6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호스피스 병실에 누워계신 안 전도사님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권면하고 또 권면하였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만을 바라보시길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에게 제가 좋아하는 영어 복음성가인 “One Thing I Ask”(나의 단 한 가지 소원)라는 노래 가사가 근거한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어드린 후 전도사님께 주님께 한 가지 일을 구하시길 권면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길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사님도 비록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계신다 할지라도 전도사님과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시편 기자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마음으로 고백하시길 기원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쓰고 나니 이젠 밖에서는 좀처럼 빗소리가 들리지 않네요. 오늘 하루를 뒤돌아 볼 때 2016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승리장로교회 모든 세 사역(한국어 사역, 영어 사역, 히스패닉 사역) 식구들과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유가족이 앉아 있는데서 지난 주 금요일 안덕일 전도사님에게 권면한 3가지 교훈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 후 조금 전에 히스패닉 성도님들이 따로 또 예배를 드린 후 식사들 하시고 다들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교회 목양실에 홀로 앉아 사랑하는 안 전도사님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이렇게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며 적어보았습니다. 저 또한 고 안덕일 전도사님처럼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크고 많은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과 더불어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제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에 저는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신앙 고백하길 기원합니다.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길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2016년 11월 20일,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신 고 안덕일 전도사님을 추모하면서)



## 수고를 그치고 쉴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요한계시록 14장 13절).**

저는 어제 목요일 오전에 노회 목사님이 입원해 계신 호스피스에 갔었습니다. 가보니 증경 노회장 목사님이 와 계시고 두 분의 여자 분들이 계셔서 병실 복도에서 혼자 기다리면서 이러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연말에 노회 목사님이 입원해 계신 병원에 왔습니다(호스피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 인생의 마무리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식구와 친구들과 동역자들과 많은 형제, 자매들과 잠시 헤어진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죽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보다 주님 앞에 서서 회계할 때에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증경 노회장 목사님이 병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인사드린 후 병실에 들어가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노회 목사님을 뵈었습니다. 저는 그 병실에 계셨던 두 여자분들 중에 한분은 목사님의 어머님이신 것을 알고 인사드린 후 목사님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 중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저에게 목사님께서 선교지에 계셨을 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어머님께서 아드님의 선교지까지 여러 번 가셔서 직접 목격한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기뻐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셔서 많은 은혜를 끼쳤다는 사실을 더 알게 되니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대화를 마친 후 목사님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기도하고 곧장 주차장으로 나와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아버님을 통해서 저에게 족보로 할머니가 되시는 김 사모님이 위암으로 소천 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사모님 할머니의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저희 교회 대학 수련회 때 요한복음 6장 1-15절 말씀을 듣게하시사 구원과 더불어 헌신케 하셔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할아버지가 소천 하셨을 때(2002년) 저는

한국에서 아내랑 아이들 셋을 다 데리고 미국에 와서 그 분의 장례식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사모님 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랑 찾아가 뵙고 싶었는데 집안 어르신 한분이 사모님이 힘들다고 저를 만류하셔서 찾아뵙지 못하고 소천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는 성경 시편 90편 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으로 수고와 슬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죽을 일이 쌓인 세상이요 밤낮으로 수고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성경은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13절). 성경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3절). 그리고 그들은 죽으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고를 그치고 쉴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한 5가지로 간략하게 목상하고자 합니다:

### **첫째로, 그들은 순결한 자들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현대인의 성경)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지킨 사람들로서 …”]. 여기서 “이 사람들은” 바로 ‘땅에서 속량함(구원)을 받은 144,000명 성도들로서(3절) 세상주의의 강한 유혹으로(“여자”들, 박윤선) 자기 자신들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을 가리킵니다(4절). 이 순결한 자들은 마치 처녀인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것처럼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정결히 수절하여 세상과 죄악을 섬기지 않습니다(박윤선). 그러므로 교회는 순결해야 합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엡 5:27).

### **둘째로, 그들은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4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현대인의 성경)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어디로 인도하든지”란 말은 그 지도 방향이 피지도자에게 미리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방향이 불확실해 보이는 지도에도, 땅에서 구원을 받은 순결한 성도들은 “어린 양”이 되시는 주님께 순종합니다(박윤선).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순결한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어린 양”)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오라 하실 때 교회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 주님과 같이 가야 합니다(새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후렴).

### **셋째로, 그들은 하나님과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현대인의 성경) “이들은 또 사람들 가운데서 사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바쳐진 사람들이며”]. ‘속량(구원)함을 받은 144,000명’(3절)은 적그리스도(“짐승”)를 따르지 않고 어린 양이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 성도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이름과 및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쓰여져 있습니다(1절).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요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상징입니다(박윤선). 즉, 그들은 하나님과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4절). 교회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주님께서 교회를 세상에서 택하였습니다(요 15:19).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과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전 10:32, 고후 1:1, 딤후 3:5)요 주님의 교회입니다(마 16:18).

### **넷째로,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5절을 보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현대인의 성경)[(개역개정)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요일 2:22). 그들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요 8:44).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량함(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계 14:5). 신실한 증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잠 14:5, 고후 11:31). 신실한 증인의 공동체인 교회도 거짓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 말은 아무 죄도 짓지 않는 무죄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롬 4:25). 즉, 흠이 없는 자들이란 하나님 앞에 무흠자로 간주된 자를 가리킵니다(박윤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흠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짓이 없어야 하며 진실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성도들은 이런 때 인내가 필요하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13:10). 그들은 온 천하를 꾀고(12:9)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10절)인 “옛 뱀 곧 마귀” 또는 “사탄”(9절)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 내어” 우리에게 내려와(12절)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벰전 5:8)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계12:17, 14:12)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12:17)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14:12).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기되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합니다(12:11). 그러므로 그들은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들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딤후 4:7-8).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죽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순결하며,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하나님과 주님께 속하였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으며 또한 죽기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대한 믿음을 지킵니다. 이러한 자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처에 영원히 쉼 것입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새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3절).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묵묵히  
신실하고 진실하게 끝까지 감당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2017년 12월 29일, 수고와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 그 수고와  
그 슬픔이 그치고 영원한 안식처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형제, 자매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길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 평안히 눈 감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열왕기하 22장 20절).**

여러분은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은 죽기 전에 결코 보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죽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죽기 전에 결코 보고 싶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제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미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제 아기가 제 품 안에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사랑과 은혜의 선물인 딜런과 예리와 예은이의 태어남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언젠가 저는 제 아내하고 어느 한분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그 분 이것 안보고 죽으신 것 참 다행이다.’ 그 분이 죽고 나서야 그분의 사위가 죄를 범하여 감옥에 가게 되었고 결국은 딸과 사위는 이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겠습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하 22장 20절은 여선지자 홀다가(왕하 22:14) 요시야 왕이 보낸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12절)에게 이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릴 모든 재앙을 요시야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 이였기 때문입니다(23:25).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힐기야가 하나님의 전에서 발견한 율법책(22:8)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의 열조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발하신 큰 진노(13절)로 말미암아 임할 재앙(16절)으로 인하여 옷을 찢었습니다(11절). 그는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에서 경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습니다(19절). 그런 후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 모으고(23:1) 하나님의 전에 모인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한 후(2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였습니다(3절). 그리고 나서 요시아 왕은 종교개혁을 하였습니다. 그는 유다 땅에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4절ff).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26절). 그 이유는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하나님을 격노케 한 그 모든 격노 때문이었습니다(2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진노를 요시아 왕 시대 때 내리지 않으시고 요시아로 하여금 평안히 눈을 감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22:20).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어느 누구도 죽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가족 식구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기 전에 자기 가족 식구들의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임하여 우리 가족 식구들의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독생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욱더 깊이, 높이, 넓게 체험해 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요시아 왕처럼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준행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들춰지는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모든 죄들 그리고 우리 온 친척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과 우리 나의 모든 죄들로 인하여 마음을 찢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욘 2:13). 우리는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가족, 친척 그리고 교회 식구들의 모든 죄들을 제해 버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임하는 저주와 재앙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평안히 눈을 감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길 기원합니다.

평안히 눈 감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1년 5월 5일, 어린이 날 아침 사랑하는 주영, 딜런, 예리, 예은이를 생각하면서)

## 다시는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 갔음이라.” [(현대인의 성경)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성경 전도서 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돌지어다” [(현대인의 성경)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두 죽을 수밖에 없으니 살아있을 때 이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사실을 명심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할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 최분남 성도님은 살아생전에 사랑하는 가족 식구 네 분의 죽음을 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뿐만 아니라 여섯 자녀분들 중 세 분 자녀들도 먼저 떠나 보내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몇 년 전 함께 사시던 아드님이 거실에서 숨진 사실을 아셨을 때 통곡하시던 최 성도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후로 최 성도님은 주일에 교회 오셔서 자주 우시곤 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슬프셨으면 ... 그래서 저는 고 최분남 성도님을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현대인의 성경). 언젠가 고 최분남 집사님을 사시는 아파트에 찾아뵙고 식탁에 돌이 앉아 대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몸이 아파 힘들어 하시던 고 최분남 성도님은 식욕도 없으셔서 식사도 잘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때 저는 그분에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하늘나라(천국)에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을 거예요. 할머니,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세요?’ 그 때 최 성도님은 제 말을 들으시더니 ‘하늘나라에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저는 다시금 그분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 때 이 성도님은 ‘믿어요’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고 최분남 성도님이 누워계셨던 St. Vincent 병원 중환자실에서 최 성도님의 자제분들과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 몇 분이 모여서 하나님께 임종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날만 해도 눈도 못 뜨시던 성도님이 그 날 임종예배 때는 눈도 뜨시고 우리를 알아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예배를 드린 후 저는 최 성도님에게 “사랑해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 많이 힘드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에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 아내도 최 성도님과 말하면서 아마 ‘할머니,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세요?’라고 여쭙었더니 최 성도님께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고 고개를 끄덕이셨나 봅니다.

비록 이 땅에 80년을 넘게 사시면서 고 최분남 성도님은 사랑하는 남편과 세 자제분들의 죽음을 접하시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고 많은 슬픔과 눈물을 흘리셨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셨습니다. 이젠 고 최분남 성도님은 가고 싶어 하시던 하늘나라에서 더 이상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겪지 않으셔도 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최 성도님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셨습니다. 이젠 최 성도님은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젠 최 성도님은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도 겪으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 성도님은 다시는 자신의 죽음도 겪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최 성도님의 몸은 이 예배 후 화장을 하게 되겠지만 이미 최 성도님의 영혼은 임종한신 후 하늘나라에 가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마지막 나팔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때(고전 15:51) 최 성도님의 영혼과 육이 연합하여 홀연히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더 이상 썩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아니할(53절) 영적인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살후 4:13).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14절)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16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입니다(17절). 그리하여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17절).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 높은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유가족 분들과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1.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2. 괴롭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 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3.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습니다
4.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주여 인도하소서
5.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후렴]

내주여 내 맘 붙드사 그 곳에 있게 하소서  
그 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웁니다.

<새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성도의 죽음을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시116:15)을 바라보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5년 1월 16일, 고 최분남 성도님의 입관 및 하관예배를 드린 그 다음 날 아침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 [고린도전서 15장 12-20절]

새해 2015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한국어 사역 식구 분들 중 두 분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고 최분남 집사님은 1월(15-16일)에 그리고 고 임봉희 집사님은 지난 달 3월(26-27일)에 장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한 지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두 분의 자매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두 자매님들은 우리 승리장로교회를 매우 사랑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몸 건강이 다하는 그 날까지 힘을 다하여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한 분은 다른 교회에 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가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 교회만 나오시기를 고집하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우리 교회를 참 열심히 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한 분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후 저 개인적으로 그 분에게 ‘사랑합니다, 할머니’이라고 사랑을 고백하였을 때 그 분은 저를 쳐다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살아생전 양로원에 계셨을 때에 제가 그 할머니의 이마에 뽀뽀를 하였던 할머니입니다. 저는 이 할머니의 하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유가족 식구들과 조문객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4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3,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진리(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셨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또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진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십시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현대인의 성경). 성경은 분명히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죽을 몸도 반드시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

**두 번째 이유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믿음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4,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된 것입니다. 그 참된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서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3-4절). 그런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믿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헛되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도 않으신 예수님을 살아났다고 믿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이것처럼 헛된 믿음과 헛된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거짓된 믿음이고 거짓된 전도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15절).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요 11:25).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참된 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참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 우리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3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용서)하여 주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칭의)을 받았는데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여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요

8:21).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으며 영원히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죄 용서함이나 구원 또는 화목이나 영적 삶은 지금이나 영원토록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잠자는(죽은) 자들도 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8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무슨 뜻입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구약에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망하였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아직 죄 가운데 있기에 그들의 운명은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결코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영원히 비참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얻어(요 10:28)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오히려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동일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롬 8:11).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몸, 썩을 몸, 죄를 짓는 몸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홀연히 변화하여 강한 몸,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입고 우리 모두다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살전 4:17). 이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승리 식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일이 쌓인 이 세상에서 나의 소망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분들의 잠드심으로 슬픔 속에서도 더욱더 간절한 기대감을 품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5년 4월 5일, 부활 주일 오후 목양실에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언제가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전 7:2). 우리는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롬 8:10). 즉, 우리의 몸은 "죽을 몸"입니다(11절).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사람 아담의 죄(원죄) 때문입니다(5:1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영은 살았습니다(8:10). 우리가 죽게 되면 몸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고전 15:20).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23절)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육체적으로 죽은 자들)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롬 8:11). 부활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기에(11절)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고전 15:23),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52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빌 3:21, 요일 3:2).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합시다(고전 15:58).

[2015. 9. 3. 수요기도회 때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정리한 것임.]

# 부활의 소망

## [고린도전서 15장 51-58절]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 두 질문은 (1)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가?’와 (2)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입니다. 저는 오늘 이 2 가지 질문을 답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길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2 가지 부활의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소망은 “다시 살리라!”입니다(고전 15:35-41).**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6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구절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첫 번째 질문인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가?’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바울의 답변은 마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지 않고는 부활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바울의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이 죽지 않고 다시 살수 있다고 믿습니까? 바울은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부활을 체험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을 보십시오: “...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성경대로”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그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둘째 소망은 바로 “하늘의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입니다 (고전 15:41-56).**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두 번째 질문은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2-44절에 적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 죽은 자의 부활은 첫째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둘째로, 육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셋째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그리고 넷째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죽은 자의 부활할 몸을 가리켜 “장래 형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37절). 이 “장래 형체”란 인간이 뿌리는 것이 아니라(37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신 것입니다(38절).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장래 “형체”는 무엇입니까? 4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장차 입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성경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십시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나팔”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다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것이기에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 우리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입을 것입니다(52-53절).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1년 4월 27일, 부활의 소망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 자는 자들에 관하여

##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21절]

영국 기독교 신문 크리스천투데이의 칼럼니스트 앨라나 프랜시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후의 삶에 대한 성경구절 11가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인터넷). 프랜시스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 마지막 소원과 장례 계획을 이야기한다고 말하면서 죽음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중 대다수는 실질적으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프랜시스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불평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한다. 죽음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대화는 대부분 부정적인 결말에 집중하는 경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죽음에 관한 또 다른 밝고, 희망적인 관점이 있다. 죽음은 많은 것들의 종말을 맞이하게 하겠지만, 지상의 삶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랜시스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죽음 이후 약속된 삶을 보장 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생을 약속받았다.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죽음을 앞둔 존재로서, 가족이나 친구들을 떠나보내야 하며,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위안을 받을 수 있다. 죽음은 실제로 영생으로 인도하며, 죽음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역을 비교하면 개역개정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번역이 원어 헬라어의 뜻에 더 맞는가하면 바로 “자는 자들에

관하여”입니다. 그런데 왜 현대인의 성경은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는 자들”이란 바로 “이미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가(3절) 죽은 줄을 아시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현대인의 성경)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리 말한 이유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했던 것입니다(13절).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밝히”(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13절). 이렇게 성경에선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자를 가리켜 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외에도 몇몇 성경 저자들도 죽은 자를 가리켜 자는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그리 표현하는 것을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리고서 그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외친 후 숨을 거두었다”(행 7:60). 사도 베드로도 죽은 자를 가리켜 자는 자라고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말하였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현대인의 성경) “예수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소?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세상은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소?’ 하고 말할 것입니다”(벧후 3:4).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제일 많이 표현한 성경 저자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6, 18, 5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현대인의 성경)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망했을 것입니다. … 내가 이제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죽은 사람들을 잠자는 자들로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였지만 16절에 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4장 9-12절에서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 말한 후 오늘 본문 4장

13-21절에서는 “자는(이미 죽은) 자들에 관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5장 1-11절에 가서는 그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 즉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관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는 자들” 즉 이미 죽은 자들에 관하여 편지를 써내려간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은 그들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4:13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소망 없는 다른 이”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외에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죽은 사람들로 인하여 슬퍼하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비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바울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성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소망(희망)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합니다(고전 15:32). 그래서 그들은 홍수 시대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눅 17:27) 평안히 쉬고 즐거워합니다(12:19). 그 이유는 그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신자들은 죽음이 끝이고 죽음 후의 세계를 믿지 않기에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으면 소망이 없는 슬픔을 겪는 것입니다(살전 4:13).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본문 14절부터 왜 슬퍼하지 말아야 할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21절 말씀 중심으로 “자는 자들에 관하여”란 제목 아래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하는지 한 2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진리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고전 15:12).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13, 15, 16절).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바울이나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헛것이요 또한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입니다(14, 17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입니다(15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죽은 사람들도) 망했을 것입니다(18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제일) 불쌍한 자들입니다(19절). 그러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3-4절).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세 안식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1-3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회당에 가서 세 주간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이십니다.' 하고 증거하였다”(현대인의 성경). 그 결과 “그들 중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또 수많은 경건한 그리이스 사람들과 적잖은 귀부인들도 믿었”습니다(4절).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상반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현대인의 성경)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나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모두 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죽은 사람(성도)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소망 없는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13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현대인의 성경)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이스라엘

국민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계약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13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8절, 현대인의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고전 15:3-4)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롬 6:23).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란 바로 “우리 몸의 속량(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롬 8:23).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고전 15:51).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2-53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로마서 8장 24-25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지막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8:24).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25절).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의 인내”, 즉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였습니다(살전 1:3).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10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5절) 이르기 전(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9절).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사 선택하시어(1:4) 부르사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2:12). 그러므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주 예수님 앞에서 바울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19-20절).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인내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성도의 죽음을 접할 때 소망 없는 불신자들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5:13). 그 이유는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14절). 더 나아가서 재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슬퍼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14절). 한 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습니다(롬 12:12).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의 인내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간구하였습니다(3:13). 바울이 이렇게 간구한 이유는 “너희의 거룩함이”(4:2)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3절).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기예(7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4:3-5).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해야 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바울은(1:2-3)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4장 13-14절에서 이미 죽은 성도들에 관하여 소망 없는 모든 비신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고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16절)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주님의 재림 때에 먼저 부활한 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한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먼저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셔서(14절) 그 때까지 살아 있는 성도들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17절). 그리고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산 자들이나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 있는 성도들이나 모두 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17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18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에 잠겨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홀연히 변화 받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 확실하고 분명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 약속된 삶을 보장 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죽음을 앞둔 존재로써, 가족이나 친구들을 떠나보내야 하며,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성도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요 살아있는 성도들도 홀연히 변화되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8년 6월 3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이미 잠든 형제, 자매님들과 재회하기를 소망하면서)



## 나의 죽음은 ...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요 11:4).  
우리는 우리 가족, 친척, 교회 식구들, 친구, 이웃을 위하여  
또한 그들에게 유익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50-52절).

##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례식 다녀왔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관 안에 누어계신 고인의 모습을 본 후  
관 옆에 서 있는 유가족 식구들(사모님과 세 자녀들)에게 인사하려고 하는데  
사모님과 두 따님이 많이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모님과 따님에게 인사한 후 조사를 읽은 아드님과 힘차게 악수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목사님을 먼저 보내시고 우시는 사모님의 마음과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자녀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그 관 안에 누워있고  
아내와 딸런, 예리, 예은이가 관 옆에 서서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보는 시간 이였습니다.

# 우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살아 있는 우리가 마음에 뒤야(명심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끝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전 7:2).

우리는 결혼식보다 장례식에 가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어드려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든 인생 기차의 종착점에서 내려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 새해 첫날 1월 1일 부터 ...

새해 2016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을 접할 줄은 예상했지만 첫날인 1일 부터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참으로 죽을 일이 쌓인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 인생의 마무리?

연말에 노회 목사님이 입원해 계신 병원에 왔습니다(호스피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 인생의 마무리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식구와 친구들과 동역자들과 많은 형제, 자매들과 잠시 헤어진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죽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보다 주님 앞에 서서 회계할 때에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 할까봐 두렵습니다.

## 만일 내가 산소 호흡기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

언젠가 아내를 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아내하고 대화하다가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산소 호흡기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산소 호흡기를 빼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 말을 들은 아내는 아무 머뭇거림도 없이

곧장 “Me too”(나도)라고 말하였습니다. 하하.

아내의 반응을 들은 저는 웃으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죽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랑하는 아내도 제 말의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니

죽음 앞에서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고 더욱더 다가오는

저 세상인 천국을 사모하자고 권면하였습니다.

##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할 텐데 ...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 후에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무슨 말을 할런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져야 할 텐데....

## 죽음으로도 ...

죽음으로도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

## 죽음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죽음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죽어도 후회 없이 감사하며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죽음을 명상하는 것에 대해"

"하루하루를 오늘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 죄를 피하는 것이 더 쉽다.  
또한 불행하게도 오래 살수록 우리의 죄는 더 늘어나기 쉽다.  
죽는 것이 두렵다면, 오래 사는 것이 더 두려운 일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항상 죽음을 준비하라(눅 21:36).  
죽음의 날에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은 지혜롭고 축복받은 자이다.  
자신의 영혼을 구제하는 일을 나중에 미루지 말고,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의존하지 말라.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데도 최선을 다해 살지 않는 것은 너무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죽음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려면 회개함으로 육신을 복종시켜라.  
죽을 때 누가 그대를 기억할 것이며, 누가 기도해 주겠는가?  
그러므로 나의 친구여,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  
시간이 있을 때 자신을 위해 영원한 부를 축적하라(눅 12:33).  
오로지 구원에 관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으라.  
죽은 후에 그대의 혼이 기쁘게 하나님께로 합일될 수 있도록 나아가라."

[토마스 아 켐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제 23장 "죽음을 명상하는 것에 대해")]

## 죽음을 심각하게 경험할 필요가?

"누군가의 슬픔에 완전히 잠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죽음을 진정으로 심각하게 경험하게 될 때,  
당신은 살아있음에 대한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Robert Veninga)

# “당신들에게 이제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토니 캠펠로(Tony Campolo)라는 학자는 노인문제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95세 이상이 된 노인 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들에게 이제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라는 설문이었다. 3가지씩 답을 하라고 했다. 이에 대한 3가지 답은 아래와 같았다.

첫째, 날마다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  
그동안 정신없이 살아서 왜 사는 지도 생각 못하고 살았다.  
좀 더 정신 차려 살겠다.

둘째, 너무 비겁하게 살았다.  
불의와 타협하며 살고 남의 눈치나 보고 살았다.  
이제부터는 좀 더 용감하게 살고 싶다.

셋째 오늘날과 같은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고 싶다.  
죽음을 생각하고 살고 싶다. 죽은 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후회스럽다.  
내가 생각 없이 산 것이 후회스럽다고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다"(인터넷).

## 죽음의 관점으로 살자

다시금 죽음의 관점을 가지게 되니(전 7:2)  
이런 저런 문제들이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 죽음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 분들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그 분들을 대할 때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의 관점, 영원한 관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전 7:2).

우리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난다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 ...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 이유는 그 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계시한 죽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 찬양,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는 사랑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데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죽기까지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저로 하여금 추억 속에 잠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저로 하여금 저 천국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저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사모하게 만듭니다.

##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통하여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게 되며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게 됩니다.



## 한 순교자의 아내의 일기

"영광의 문"이라는 책(저자: 엘리자베스 엘리엇)에서 다섯 명의 젊은 복미 선교사 순교자들 중 한 미망인인 바바라 유데리안의 일기 내용입니다:

"오늘밤 대위가 우리에게 강가에서 네 시체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하나는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런 옷차림을 한 사람은 로저 밖에 없었다. 이를 전 하나님은 내게 시편 48:14 말씀을 주셨다. '이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 하나님이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로저의 죽음소식을 접하면서 내 마음이 찬송이 충만했다. 그는 본향에 가기에 합당한 자였다. 주님, 제가 엄마 역할과 아빠 역할을 다 잘하게 도와주소서. '주의 교양과 훈계'(엡6:4)를 알게 하소서.... 오늘 밤 베스가 천국에 가신 아빠를 위해 기도하며 내게 물었다. '아빠한테 편지를 쓰고 싶은데 아빠가 천국에서 내려와 편지를 받아갈 수 없느냐고. 내가 '그럴 수는 없단다. 아빠는 예수님과 함께 있거든'했더니 베스는 '하지만 예수님이 아빠가 내려오도록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빠가 미끄러지지 않게 아빠 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했다. 선교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써 내가 누리는 평화를 설명했다. 나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것은 생명을 갇아먹는 사탄의 도구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 확신한다. ..."

한 순교하신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쓰신 이 일기를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다. 아니 받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나는 사랑하는 내 아내와 하나님이 주신 세 자녀들을 주님께 받치는 생각과 기도를 마음속으로 계속 드리고 있다. 이번 주에는 신학교 선배 목사님의 둘째 딸이 10살인데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다. 언젠가는 나 또한 내 아내나 아이들을 먼저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주님보다 아내와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싶지 않다. 그들도 주님께 받치고 싶다. 그러기에 이 사모님의 일기는 나에게 큰 도전이 된다. "본향에 가기에 합당한" 나 자신과 아내, 자녀들이 되길 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 식구 앞에서 이 사모님이 말씀하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싶지 않다. 더 큰 영광을 보길 원한다. 아내와 아이들은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귀한 선물들이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연민보다 우리가 가야할 본향의 영광에 잠기길 원한다. 언젠가 내 아내도 이 사모님과 같은 일기를 쓸 수 있길 기원한다. 물론 내 자신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

##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오늘 두 친구가 부인하고 헤어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두 친구 다 결혼이 늦어져서 자녀도 어렵니다. 한 친구는 사고로 몸이 다쳐 1년 넘도록 전신 마비 상태에 있었는데 부인하고 합의상 헤어진 후 약 한 달 지난 지난 주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 ㅠ 또 다른 친구는 이혼한지 약 두 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간곡히 부탁하여 고민하다가 결혼 주례를 제가 썼었는데 이렇게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좀 그러네요.

이런 저런 생각이 듭니다. 죽은 친구를 생각하면 육신보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인과 헤어지는 것을 합의해 준 그 마음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부부란 위기 때 더욱더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그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부부의 사랑은 위기 때 좀 더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부인 자매를 생각하면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앞으로 이 미국에 아무 식구, 친척도 없이 꼬맹이 아들하고 어떻게 헤쳐 나갈지 ... ㅠ)

## 암 환자의 심정?

오늘 노회 목사님 한 분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간암 말기로 발견한지 두 달 만에 잠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의 소천 소식을 노회에 다른 목사님이 모든 노회원들에게 이 메일로 알려주셨는데 그 목사님 자신이 지난주엔가 위암 3기라는 판정을 병원에서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위암 3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간암 말기로 소천하신 노회 다른 목사님에 대한 장례 일정을 우리 노회원들에게 이 메일로 알려주신 그 분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란 말씀이 생각납니다(아 8:6). 금년 2016년 한 해를 뒤돌아 볼 때 제 마음에 깊이 남겨주신 사랑은 참으로 죽음 같이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그 사랑하는 분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분을 통하여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록 헤어짐의 슬픔과 아픔이 많았지만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케 하시사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보내드리는 사랑을 이렇게 금년 한해도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 귀한 사랑을 마음에 고이 간직합니다.

## 죽기 전에 용서하라

"죽기 전에 자신을 용서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

- 미치 앨봄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중에서 -

“죽은 다음에 비로소 하는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하는 용서라야 진정한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것만이 나를 살리고 서로 사는 길입니다.”

죽기 전에 용서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세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의 죽으셨듯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용서를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 죽기 전에 화해해야 합니다.

장례식 때 유가족끼리 화목하지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로 부모님 중에 한분의 장례식 때 자녀들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워라 표현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하면서 어떤 분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자기랑 관계가 안 좋았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한 후에 떠나셨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점은 그 분의 장례식 때 그 분의 형제 중 한 분이

조문객의 화원을 장례식장에서 치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떠나신 당사자 분은 다 화해했는데

그 분의 형제 중 한분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잘 죽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모든 조문객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래서 마음의 기억에 남는

장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성경 로마서 12장 18절 말씀대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 안하면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오늘 대학교 후배의 어머니의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유가족 분들은 관 옆에 서 계시고 조문객들이 줄을 서서  
고인의 관 쪽으로 걸어가면서 유가족 식구 분들께 위로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대학 후배의 대학 룸메이트였던 자매와 함께 줄을 서서

유가족 식구 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니를 떠난 보낸 그 후배는 많이 울고 있었습니다.

ㅠ

저에게 울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하는 후배에게

저는 힘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저 악수하였습니다.

나중에 식당에서 그 후배의 대학 룸메이트들과 식사하면서

그 후배와 대화하면서 알게 된 것은

그래도 그 자매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중환자실에서 누워계신 어머니께  
마음의 고백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 얘길 듣고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친구에게 잘했다고 격려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 점은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내기 전에

마음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하면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슬픔 중에서도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사랑의 눈물이 있기에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순간적인 헤어짐 속에서 영원한 만남의 산 소망이 있기에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에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에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함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에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기에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 진정 우리는 사랑할 시간 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배우 고 김주혁 씨(45살)의 사망 소식과 더불어 그의 연인인 이유영 씨의 충격을 받았다는 뉴스 기사를 읽으면서 몇 가지 드는 생각을 나눕니다.

첫째로, 고 김주혁 씨가 나온 드라마를 본 기억이 떠오르면서 얼굴이 익숙한 배우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좀 놀랐습니다.

둘째로, 고 김주혁 씨의 나이가 45살인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떠났다는 게 안타까우면서 참으로 우리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주어진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셋째로, 뉴스 기사를 보니 어쩌면 고 김주혁 씨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이란 글을 보고 심근경색에 대해 좀 인터넷을 뒤져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는 저보다 젊은 목사님도 심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의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다고 들었는데 저는 고 김주혁 씨의 사망 소식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혹시 그도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심근경색"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 한국에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모로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이 받고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넷째로, 연인을 먼저 떠나보낸 이유영 씨, 27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그녀의 심정은 지금 어떨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종종 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제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 또는 반대로 제 아내가 저보다 먼저 떠나면 제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저와 아내를 같이 천국으로 불러주시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에게 오늘 하루 주어진 것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연인/배우자/자녀/부모님 등등 그/녀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십시오. 언젠가는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고 헤어짐은 잠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정 우리는 사랑할 시간 밖에 없습니다.

[2017. 10. 31.]

# 타이태닉호 생존 부선장이 공개한 침몰 뒤에 감춰진 감동적인 이야기

당시 생존자인 부선장은 오랜 세월 침묵 끝에 드디어 사고 당시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1912년 4월 14일은 공포의 날이었습니다. 사고로 1,514명이 사망했고 710명이 구조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38세였던 타이태닉호의 이등 항해사 찰스·래히틀러 씨는 구조된 승객을 책임지기 위해 선원 중 유일하게 구조된 승무원이었습니다. 아래는 찰스·래히틀러 씨의 타이태닉호 참사의 자세한 사정을 담은 17페이지 분량의 회고록입니다.

선장은 침몰을 앞두고 여성과 아이를 먼저 구조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많은 여성승객들이 가족과의 이별 대신 남아있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높은 소리로 ‘여성과 아이들은 이리 오세요!’ 라고 불렀지만, 가족을 버리고 혼자 구명보트에 오르려는 여성과 아이는 몇 명 없었습니다. 래히틀러는 ‘살아 있는 동안 그 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첫 구명보트가 바다로 내려가고, 저는 갑판 위에 한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어서 구명보트에 오르세요!” 그녀는 뜻밖에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배에 남겠어요.” 이 말을 들은 여성의 남편이 “그러지 말고 어서 타세요! 여보!”라고 말하자, 여성은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혼자 가지 않겠어요. 당신과 함께 이 배에 남을 거예요.” 그것이 제가 본 그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애스터 IV(당시 세계 최고 부자) 씨는 임신 5개월 된 아내를 구명보트에 태워 보내며 갑판 위에 앉아, 한 손에는 강아지를 안고 다른 한 손에는 시가 한 대를 피우면서 멀리 가는 보트를 향해 외쳤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승객들을 대피시키던 선원 한 명이 애스터 씨에게 보트에 타라고 하자, 애스터 씨는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자리를 곁에 있던 한 아일랜드 여성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배의 파편들에 의해 찢겨진 애스터 씨의 시신을 생존자 수색 중이던 승무원이 발견했습니다. 그는 타이태닉호 10대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가진 부호였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양심을 지킨 위대한 사나이의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성공한 은행가였던 구겐하임 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도 화려한 이브닝드레스로 갈아입으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죽더라도 체통을 지키고 신사처럼 죽겠습니다.” 구겐하임 씨가 아내에게 남긴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나의 이기심으로 구조 받지 못하고 죽어간 여성은 없을 것이요. 나는 금수만도 못한 삶을 살 바에야 신사답게



죽을 것이요.” 미국 메이시즈(Macy’s)백화점 창업자 슈트라우스 씨는 세계 2번째 부자였습니다. 그가 어떤 말로 설득해도 아내 로잘리 씨를 구명보트에 태우지 못했습니다. 아내 로잘리 씨는 “당신이 가는 곳에 항상 함께 갔어요. 세상 어디든지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라며 남편을 두고 배에 오르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8번 구명보트의 책임 선원이 67세의 슈트라우스에게 “누구도 어르신이 보트를 타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구명정 탑승을 권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슈트라우스 씨는 단호한 말투로 “다른 남성들보다 먼저 보트에 타라는 제의는 거절하겠습니다”라며 생사의 순간에도 초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63세의 아내 로잘리 씨의 팔을 잡고 천천히 갑판 위의 의자에 앉아 최후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현재 뉴욕 브롱크스에 슈트라우스 부부를 기리는 기념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있습니다. ‘바닷물로 침몰시킬 수 없었던 사랑.’ 프랑스 상인 와트열 씨는 두 아이를 보트에 탄 여인들에게 부탁하고 배 위에 남아 아이들과 작별했습니다. 두 아들은 이렇게 구조되었고 세계 각지의 신문사들이 어머니를 찾을 수 있도록 연달아 사진을 실어주어 어머니와는 재회할 수 있었지만, 배에 남겨진 아버지와는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리더파스는 남편을 꼭 껴안고 혼자 살아남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남편은 주먹으로 그녀를 기절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바다 위에 떠 있는 구명보트 안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재가하지 않았으며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스 로잔의 생존자모임에서 스미스 부인이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한 여성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제 두 아이가 구명보트에 오르자, 만석이 돼서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때 한 여성분이 일어나서 저를 구명보트로 끌어당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오세요.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 대단한 여성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이름 없는 어머니’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억만장자 아스테드, 저명 신문가 험스테드, 육군 소령 바트, 저명 엔지니어 루오부어 등 사회의 저명인사가 많았지만, 이들 모두 곁에 있던 가난한 농촌 부녀들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주요 승무원 50여 명 중 구조를 책임졌던 이등 항해사 래히틀러 외 전부 자리를 양보하고 배와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새벽 2시, 각자 도망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1번 연산사 존·필립스는 여전히 전산실에 앉아 마지막 순간까지 ‘SOS’를 입력하며 자신의 보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미가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삶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이 서로에게 외쳤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날, 우리 모두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 줬습니다. 제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었습니다. 일본 철도원 차장인 호소 노텍스트 씨는 여장을 한 채 여성과 어린이들로 채워진 10번 구명보트에 올랐습니다. 그는 귀국 후 바로 퇴직 당했습니다. 모든 일본 신문사와 여론은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그는 십여 년 뒤 후회와 수치로 가득 찬 삶을 마감했습니다.

1912년 타이태닉호를 기리는 자리에서 타이태닉호를 건조한 선박회사 White Star Line는 희생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성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해상 규칙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행동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이자,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 한 몽골 자매의 유언장

안녕하세요?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누구든지 저로 인하여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 보다 조금 먼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의 장례식은 기독교 장례로 해 주십시오. 특수 목사님께서 저의 장례식을 집례해 주시고, 찬양인도는 어뜨너가 해주세요 “어뜨너, 1. 227 2, 36 3, 236 4, 360 이 찬양을 불러주기 바래.”

\*어머니 이 딸을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믿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세상 누구도 받지 못한 사랑을 풍성히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과 가족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빠 소토 그리고 남동생 알가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좋은 동생이 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죽음이 누구의 잘못도 아님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 길을 제가 선택하였습니다. 소모오빠 제가 마지막으로 오빠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오빠가 내가 믿는 그리고 나를 매우 사랑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동생들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분을 꼭 만나기를 바란다.

\*나기 고모에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다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이라 고모부 저는 당신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바울” 과 같은 사람이 되세요.

\*아야 큰고모, 담진 고모부 당신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들도 예수를 잘 믿으시고 제가 당신 두 분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주일을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뱃체책 언니와 여동생들아 정말로 진실로 사랑합니다. 언니 동생들아 진실로 너의 삶을 하나님으로 다스림을 받고 살기를 바란다. 나의 3형제 소토오빠, 소르토, 알가 3형제가 모두 목사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목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신학교에 꼭 들어가세요.

\*영원한사랑교회 모든 믿음의식구들인 언니, 오빠, 동생 친구들 모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당신들의 사랑이 나를 격려하고 용기와 힘을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한사랑 교회”가 진정으로 사랑의 교회가 되어 많은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특수 목사님은 저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오윤선생님(윤향숙선교사)는 저의 영적 어머니가 되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영적 아버지를 만나러 가고자 합니다. 저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제 옷들을 교회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아니면 가난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던 책들은 모두 교회에 전해 주세요. 어머니,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저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바 외삼촌,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삼촌 꼭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엄마 이 말을 간바 외삼촌에게 꼭 전해 주세요. 그리고 흘라나 이모, 소프타이모, 다와후이모, 민데외삼촌, 수해외삼촌 모두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기쁨으로 천국에서 만납시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2013년 9월 12일 오, 소프등체첵 씬.

# 죽음

한 이주 전 부활 주일 오후 성경공부 때 성도님들에게 "죽음"대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다. 목사가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라고 물었더니 대부분 60넘으신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고통 없이 죽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하셨다. 그래서 전 "그럼, 심장마비네요"라고 답변을 해드렸다. 이분들과 대조적으로 40-50대 성도님들은 죽음에 대해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듯하다. 그래서 난 그들에게 특별히 더 강조하면서 도전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해 보길 말이다. 그리고 한 말 잘 죽기 위해서(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길 위해서) 하루하루 잘 살아야 한다고 도전하였다.

조금 전 마크 형제의 임박한 죽음의 소식을 접한 후 슬픔에 잠긴 한 자매와 대화를 나눴다. 메신저로 하다가 전화를 하였더니 슬픔에 못 이겨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이 아침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 보는 것이다.

죽음이란 적어도 죽음 앞에 놓여 있는 형제를 보는 제 삼자 입장에서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된다. "천국에서 만나자"(See you in heaven)이란 말을 남기는 마크 형제를 생각하면 한 면으로는 슬픔과 웬지 모르는 무거운 마음이 우리에게겐 있지만 또 한 면으로는 예수님을 서현교회 영어사역(SEM)에서 그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였기에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확신 속에 있는 형제를 생각하면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한 형제의 삶과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면서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내 안에 공존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이것이 아름다운 죽음을 예고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으로 생각할 때에 마크 형제는 내가 부러워하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난 부활절 성경공부 때도 교인들에게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 나는 적이 기억난다. 내가 맞이하고 싶은 아름다운 죽음은 장례식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과 사랑에 경험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참석하여 한 면으로는 나의 죽음, 이 세상에 그들과 함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슬퍼하면서 또 한 면으로는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보고 싶어 했던 주님을 만나러 천국에 갔기에 기뻐 찬양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나의 죽음은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장례식을 난 꿈을 꾸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선 아름다운 삶을 하루하루, 아니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또한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마크 형제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서현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한 형제이다. 그는 나보다 교회에 더 많이 나가 있으면서 (매일로 기억함; 난 담임목사님께 '제임스, 교회 끊었어?'란 질문까지 받을 정도였음) 마크 형제는 사사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진정 교회 카페 이름처럼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였다. 오늘 전화 통화를 통해서 흐느껴 울던 자매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매 중에 하나라 난 생각한다. 이 자매는 마크 형제에게 자기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하였지만 그 자매가 잘 한 것은 마크의 compelling love를 기쁨으로 겸손히 받았다고 난 생각한다. 그렇다. 마크 형제는 사랑을 주고 싶어 했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그저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기쁨으로 받아주는 것이 마크 형제에겐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난 생각한다. 난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내 잘못함을 그에게 고백했고 용서를 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를 향한 나의 불평 아닌 불평은 사랑을 줄 주는 알고 받을 주는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좀 다툼 아닌 다툼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러기에 난 오늘 통화한 자매보다 마크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인생의 종착점을 안다면, 즉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안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본다. 좀 더 지금보다 다르게 살려고 노력할 것인가? 난 여전히 '싸이 사역'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난 이 사역이 나의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을 믿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마크 형제의 종착점은 어쩌면 나보다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종착점을 향하여 하루하루 이 세상에서 남은 고귀한 시간들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사랑의 call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 사랑을 기쁘게 겸손히 받는 가운데 그가 우리 각자 마음에 남긴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들을 귀히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마크 형제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04년 4월22일 마크 형제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 아이들과의 대화

얼마 전 주일 아침 차타고 교회를 오는 도중에

복음성가를 차 안에서 틀었습니다.

복음성가를 듣자가 "God"(하나님)이란 단어를 들었는지

예리가 'I know that song'(나는 그 노래 안다)고 말하면서

"God Is So Good"(좋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리가 "I want to be God"(나는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말하기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아이의 말을 순순히 듣고 어떻게 예리가 New Age(뉴 에이지) 사상의 핵심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예리에게 'You want to be with God?'

(너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지?)라고 예리의 말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의 딜런과의 대화입니다:

예리: I want to be with God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딜런: Then you must die (그럼 너는 죽어야 한다).

예리: Are you going to miss me? (그럼 너는 나를 보고 싶을 꺼야?)

아이들의 이 대화를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Uncle Mark이 죽은 후에 아이들에게 이젠 Uncle Mark는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아마도 딜런 입장에서는 죽어야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아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한쪽으로는 웃었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는 마크 형처럼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2004년 7월 18일]



## 첫째 아기의 죽음

결혼한 지 7개월 후인 1997년 11월, 미국으로는 감사 계절에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Los Angeles에 있는 Good Samaritan 병원에 갔었습니다. 간호사가 아내를 검사하더니 좀 이상하다고 하여 초음파인가를 찍어 보자고 했습니다. 찍어본 결과는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이상하다고 저희 부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아기의 횡경막이란 것이 한쪽에 없어서 내장이란 다른 것들이 위로 올라와 왼쪽 폐가 없고 심장은 오른쪽으로 많이 밀려있었을 뿐만 아니라 척추가 "S" 모양으로 돼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선물인 첫째 아기 주영[저희 아버님 지어 주신 이름으로서 뜻은 "주님의 영광", 영어 이름은 제가 Charis(헬라어로 "은혜"라는 뜻)로 지어 주었음]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1998년 3월3일 순산케 하셨습니다. 아기를 받자마자 의사 선생님은 그 아기를 아내에게 한 몇 초 앉아보게 하더니 곧장 준비해 놓은 incubator 같은 것에 아기를 놓고 데리고 나가서 응급차에 실어서 더 큰 Los Angeles Children 병원 중환자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주영이는 55일 동안 있었습니다. 아기를 방문할 때마다 저는 사랑하는 주영이에게 "Jesus Loves Me"(예수 사랑하심은)을 불러 주었습니다. 여기 저기 호수 같은 것이 꽃아 있었고 입에도 꽃아 있어서 저는 주영이가 무슨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저기(머리까지도)에 바늘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주영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희 부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저 아기가 살기를 기도하며 기대하였습니다. 대수술을 두 번 정도 했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수술이 잘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기를 살려주시려는가 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54일째 되던 주일(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 날), 여동생이 병원에 갔다가 교회로 돌아왔는데 주영이가 위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온 몸이 피가 통하지 않아서인지 시퍼렇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때 아내는 곧 바로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친구에게 들은 간증이 생각나서 마음은 주영이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교회에 책임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가기로 결심하고 다 마치고 나중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의사 선생님은 저를 따로 불러서 저에게 두 가지 options을 주었습니다: (1) 아기를 천천히 죽게 할 것이냐 아니면 (2) 빨리 죽게 할 것이냐. 그 때 저는 천천히 죽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나중에 집에 와서 아내랑 대화를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가 더 이상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 그 때서야 아기를 빨리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 저는 성경을 읽다가 시편 63편 3절 말씀이 마음에 다가와서 아내에게 나눴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주영이의 55일 인생보다 나으므로 우리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라 믿고 병원으로 향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우리의 결정을 통보한 후 저는 저희 부모님과 형부부와 여동생에게 연락하여 다들 중환자실로 와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들 옆방으로 가 계시고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영이를 제 품에 앉고 옆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때 그 순간 저는 숨이 넘어갈 정도로 통곡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영이를 제 품에 앉고 옆방으로 갔습니다. 옆방으로 갔을 때 다들 울고 계셨지만 아버님은 저에게서 주영이를 달라고 하시더니 그 아기를 품에 앉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신 후 성경 요한복음 3장1 6절을 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가 오더니 주영이의 심장을 들어보더니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얘기해 주더군요.

몇 일 지난 후 저희 부부는 주영이를 화장한 후 그 아기의 뱃가루를 가지고 한 호숫가로 갑니다. 작은 배를 빌려 타고 제가 배 뒷부분에서 배를 조종하고 아내는 앞부분에서 아기의 뱃가루가 들어 있는 작은 box를 들고 호숫가 구석 쪽 부분으로 가서 뿌렸습니다. 그런 후 다시 돌아오면서 배를 조종하고 있는 저에게 아내가 갑자기 고개를 돌이더니 "Titanic"이라고 말(농담?)하더군요. 그 때 제 아내의 양쪽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미국 복음성가 "My Savior's Love"(혹은 "I Stand Amazed")를 힘차게 찬양케 하셨습니다:

- (1절) I stand amazed in the presence Of Jesus the Nazarene,  
And wonder how He could love me, A sinner, condemned, unclean  
(예수의 임재 앞에 놀라움으로 서있네 이 부정한 죄인을 어찌 사랑하시는 지!)
- (2절) For me it was in the garden He prayed: "Not My will, but Thine."  
He had no tears for His own griefs, But sweat drops of blood for mine.  
(내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갓세마네 기도했네 자신을 위한 선택 없이  
날 위해 그 피 흘렸네)
- (3절) In pity angels beheld Him, And came from the world of light  
To comfort Him in the sorrows He bore for my soul that night  
(천사들 연민 하던 때에, 세상의 빛으로 우리 슬픔 말기 위해 그 밤에 날  
감당했네)
- (4절) He took my sins and my sorrows, He made them His very own;

He bore the burden to Calvary, And suffered and died alone

(나의 슬픔 나의 죄를 자기에게 감당했네 갈보리 고난당하고 홀로 십자가 지셨네)

(5절) When with the ransomed in glory His face I at last shall see,

'Twill be my joy through the ages To sing of His love for me.

(영화되어 승리하고, 그를 보게 될 그 날까지 기쁘게 부를 찬양제목 날 향한 주의 사랑)

(후렴) O how marvelous! O how wonderful! And my song shall ever be:

O how marvelous! O how wonderful! Is my Savior's love for me!

(오 놀라워, 오 놀라워 내 노래 멈출 수 없네 오 놀라워, 오 놀라워 날 향한 내 주의 사랑)



# 아빠가 배운 교훈은 무엇이에요?

2013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나는 딜런과 예리는 교회에 데려다 주고(pre-teen class가 있기에) 예은이만 데리고 아내가 일하는 직장으로 갔다. 그 이유는 아내를 pick up해서 예은이와 함께 일본 타운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차 안에서 아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떻게 대화가 시작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은이는 세 자녀들이 있는 어느 엄마에 대하여 ‘그 여자는 아이를 많이 낳았네요’라는 식으로 말하길래 나는 예은이에게 ‘너의 엄마는 아이를 낳이나 낳았다’고 말해주었다. ㅋㅋ 그러면서 나는 예은이에게 죽은 첫째 아기 Charis(주영)에 대해서 말했다. 그랬더니 잠깐 있다가 예은이는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였다: ‘What is the lesson did you learn from God?’(아빠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교훈은 무엇이에요?). 나는 그 질문을 받고 서슴없이 예은이에게 ‘하나님의 사랑’(God’s love)”라고 답했다. 실제로 나는 첫째 아기 Charis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기에 예은이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랬더니 예은이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기를 죽이셨는데 사랑을 배울 수 있느냐는 식으로 나에게 질문을 하였다. 예은이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다. 나는 그 질문을 받고 좀 머뭇거렸다. 그 이유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배운 그 깊은 사랑을 이 아이에게 설명해야 하는지 난감했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예은이가 혼자 하는 말 같았는데 내가 듣기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듯이 아기를 죽이시므로 ...’였다. 아마도 예은이는 자기 나름대로 내가 한 말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자동차 창문 밖으로 아내가 직장 건물에서 뛰어 나오는 것을 보고 예은이에게 ‘저기 엄마가 나온다’라고 말해주었다. 그랬더니 예은이도 뒷좌석 창문 밖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함께 아내가 차에 다기를 기다렸다. ㅎㅎ 나는 아내가 차에 타서 앉자마자 예은이가 한 말을 짧게 말해 준 후 예은이의 질문을 아내로 하여금 대답해 보게 하려고 말을 꺼내려고 하니까 예은이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한국어로 아내에게 예은이가 첫째 아기 Charis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배운 교훈이 무엇인지 질문했다고 말해 준 후 어떻게 그 아기의 죽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는지 질문했는데 답하기가 난감했다고 말해주었다. 그런데 예은이가 당신하고 나누는 것을 원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더니 아내는 나에게 ‘아마도 예은이가 아빠하고만 대화하고 싶었던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저녁 식사하러 식당으로 가면서 더 이상 첫째 아기 Charis(케리스)에 대하여 대화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막둥이 Karis(케리스) 예은이에게 속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비록 하나님께서 첫째 아기 케리스를 데려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케리스를 엄마와 이 아빠에게 선물로 주셨다.'

# 걱정 마세요, 엄마!

2010년 9월 22일, 수요일 저녁.

이 날 저녁, 사랑하는 아내는 세 자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애리조나 할아버지(외할아버지)가 암(cancer)에 걸리셨다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다들 놀라하더라고 하더군요: ‘Really?’(진짜요?), “Cancer?” (암?), ‘O no’(오우, 노우), ‘O my gosh’(세상에 맏소사) 등등. 그런 후 첫째 딸 예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I guess God wants him in heaven faster’(아마도 하나님은 그가 천국에 빨리 오길 원하시는가 봐). 그리고 나서 예리는 자기 엄마를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Don’t worry, Mommy! You are going to die too.’(걱정 마세요, 엄마! 엄마도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리는 엄마를 hug 했다고 합니다. ㅎㅎ

제 아내는 이 대화 내용을 애리조나 장인 어르신 댁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통하여 웃으면서 알려 주었습니다. 아내가 웃었던 이유는 아마도 아이들이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모습 때문이었나 봅니다. 더 나아가서 아내가 웃었던 이유는 예리가 엄마에게 “걱정 마세요, 엄마! 엄마도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ㅎㅎ 좀 엉뚱한 데가 있는 아이라... ㅎㅎ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아는가 보다. 양로원에 아이들을 한 2년 동안 데리고 다녔더니 이 아이들도 죽음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가 보다 (참고: 저희 교회 두 할머니를 아이들하고 같이 방문하였었는데 그 두 분이 다 돌아가신 사실을 아이들도 알고 있음). 왠지 예리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걱정이 없나보다, 엄마가 죽는 것도 ... 등등.’

우리가 죽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죽음을 너무 무겁게 여기는 것도 왠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나는 아빠를 화장할거예요’

2015년 1월 23일, 금요일 오후.

나는 장례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듯하다. ㅎㅎ 그 이유는 내게는 우리 집 막둥이 예은 (Karis)이가 있기 때문이다. ㅎㅎ 안 그래도 예은이가 더 어렸을 때 자기가 아빠와 엄마를 집 뒤뜰에다가 묻어주겠다고 말했었는데 이번에는 나를 화장해주겠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ㅎㅎ 금요일 오후, 아이들과 함께 월남국수를 먹고(수요일에서 금요일로 옮겼음 ㅎㅎ)하던 대로 그 월남국수 집 옆에 있는 한국 마켓에 가서 딜런과 교회 친구 준에게 돈을 5불 주고 마켓에 들어가서 봉어빵 좀 사오라고 시켰다. 그리고 나는 예리와 예은이와 함께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의 넷째 삼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그 내용은 삼촌의 친구 분이 60대 초반에 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믿지 않는 베트남 부인에게 삼촌이 쓰신 한국어 글을 영어로 좀 번역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글을 보고 사랑하는 딸 예리와 예은이에게 그 글에 대한 내용을 짧게 알려준 후 나의 삼촌의 친구 분도 화장을 했다고 말해주었다(안 그래도 얼마 전 교회 고 최분남 할머니가 소천하신 후 화장을 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해주었는데...).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막둥이 예은이가 자기는 나를 화장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ㅎㅎ 그래서 나는 예은이에게 이 아빠가 유언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그 말의 의미는 너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 아빠가 해야 한다는 ... ㅎㅎ). 그 말을 들은 예은이는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하길 원하냐고 묻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예은이에게 ‘이 아빠는 상관없다’고 말해주었다. 너희들이 이 아빠를 무덤에 넣던 화장을 하던 상관이 없다고 말했더니 예은이는 나를 화장할거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ㅎㅎ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이 아빠가 땅 밑에(무덤 속에) 들어가 있으면 벌레가 내 몸에 있는 것이 싫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ㅎㅎ (아마 예은이의 입장에서는 벌레가 자기가 사랑하는 이 아빠의 시신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싫어하는 듯 했다). 잠시 침묵하다가 나는 예리와 예은이에게 이 아빠와 엄마가 죽으면 슬프겠지만 기뻐(happy)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랬더니 옆에 앉아 있던 예리가 어떻게 해피 할 수가 있냐고 물었다. 그 때 나는 빌립보서 1장 22-24절 말씀이 생각나 예리에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

해주었다. 그러니 이 아빠 엄마가 죽으면 가고 싶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기에 기뻐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대화를 마칠 즈음 한국마켓에서 딜런과 준이 나오면서 준이 손가락으로 숫자 “6”를 … 그 말은 \$5 주고 붕어빵을 6개를 받았다는 말이었다(7개를 받아오도록 시도해 보라고 했건만 ㅎㅎㅎ). 죽을 때 죽더라고 붕어빵은 맛있게 먹고… ㅎㅎ



## 장 할머니의 키스

이번 주 월요일(9월10일), 거의 3주 만에 양로원에 방문하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박춘희 권사님과 장을수 할머니를 찾아보았습니다. 100% 치매 걸리신 박춘희 권사님은 이번에도 찾아보았을 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얼굴만 뵙고 장을수 할머니가 계신 병동으로 갔더니 주무시고 계시다가 제 인기척을 들으셨는지 깨셔서 반갑게 손을 내미셔서 힘차게 악수를 하였습니다. 한국과 몽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음을 장 할머니께 보고 드린 후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찬송가 40장을 찬양하였습니다. 장 할머니께서는 한 3주 동안 좋아하시는 찬송가40장과 355장과 시편23편을 못 부르셔서 많이 잊어버리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찬송가40장1, 2절을 반복하여 몇 번 부를 때에 할머니도 쫓아 부르시면서 기억이 다시 살아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가 뜨겁다고 하시기에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전히 힘차게 장 할머니는 "아멘, 아멘"하였습니다.

떠날 시간이 되어 인사를 드렸을 때 장 할머니는 손을 내미셔서 저 또한 손을 내밀어 힘차게 악수를 하였을 때 갑자기 할머니는 고개를 드셔서 제 손등에다가 키스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악수한 채로 장 할머니의 손등에다가 키스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루속히 자신을 부르시기를 학수고대 하시는 장 할머니,  
훨훨 날라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계시는 장 할머니,  
주님께서 그의 때에 장 할머니를 부르시사 그의 품에 앉으시고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입 맞추신 것처럼 장 할머니를 입 맞춰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2007년 9월13일]



##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싶습니다.

지난주일(12일) 오후에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아버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사랑하는 두 분 집사님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버님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시기 전에 모시고 가서 그 두 분 집사님을 뵈면 그 분들이 기뻐하시고 위로가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김 모 집사님 댁에 찾아 갔을 때 김 집사님은 누워계셨습니다. 암으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 김 집사님, 침대에 누워있는 힘든 몸을 일으켜 옷을 걸치고 거실로 와서 앉으셔서 여 집사님과 두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좋아하는 찬송을 원로 목사님이 물으시니까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부르시고 싶다고 하셔서 다 함께 두 번 반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시편 23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사랑하는 김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우리는 "Happy Birthday!"를 불렀습니다. 그 날이 부인되시는 여 집사님의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 계셨는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때 힘드실 텐데도 부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소리 작게 부르시는 김 집사님, 그 모습을 보시는 여 집사님... 헤어질 때 원로 목사님이 김 집사님을 hug하셨습니다. 김 집사님이 이를 보이시면서 까지 환하게 웃는 모습... 밝은 모습... 그런데 왜 이리 몸이 마르시게 보이던지... (어제 수요기도회 때 여 집사님은 혼자 교회에 나오셨음. 의사의 말로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

우리는 김 집사님의 집에서 나와서 그 근처에 있는 양로 호텔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교회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임 모 할머니가 계신 곳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하신 후 앉아계셨습니다. 유리창 문 밖으로 저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부모님께서 임 할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가서 앉아 대화 후 우리는 "나의 갈길 다가도록"을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임 할머니는 죽기 전에 이곳에 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 91세 연세에도 정신이 멀쩡하신데 할머니보다 젊은 많은 분들이 치매가 있으신가 봅니다. 그런 분위기라서 인지 임 할머니는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전에도 교회 두 분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양로원에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웃고.. 등등.. 그 순간순간이 너무 귀하기에... 저는 할머니님과 농담도하고 웃고 그랬습니다. 헤어질 때 문밖까지 마중 나오신 임 할머니.. 주차장으로 가면서 다시 한 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임 할머니의 걸어가시는 그 뒷모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저는 서현교회 있었을 때 한국 젊은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좋아하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 분들을 통하여 죽음의 관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죽음의 관점을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 제 품에 안겨 잠든 첫째 아기 주영이가 생각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과 더불어 제 자신의 죽음도 자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천국에 가 계신 사랑하는 분들을 기도하면서 종종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이나마 죽음을 통한 아픔과 눈물을 통하여 성장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죽음의 공포와 아픔과 눈물 속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함께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하루하루가, 그 순간순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싶습니다.

[2012. 2. 16.]



## 임봉희 할머니

저희 교회 92세 되신 임봉희 할머니이란 분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의 따님이 일하시는 직장에 전화해서 그 분이 계신 양로원에 주소를 받아서 저희 교회 장로님과 함께 찾아뵈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보고 놀랐습니다. 못 본 사이에 너무나 많이 늙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젠 너무 힘드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함께 할머니의 왼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 우리에게 하시는 할머니, 주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승리장로교회를 사랑하시며,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시며 저와 우리 승리식구들을 사랑하시는 임 할머니, 등을 쓰다듬어 드리면서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실 것을 권면해 드렸습니다. 자제 분들이 사주신 것 같은 예쁜 옷을 입고 머리카락도 단정하게 깎으신 임 할머니, 비록 육신은 하루하루 약해지시고 마음도 힘이 점점 없어지시지만 할머니를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 할머니를 붙잡아 주시고 힘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할머니와 헤어지기 전에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추억이 많아.' 하나님께서 임 할머니를 승리장로교회로 인도해주셔서 수년 동안 마음에 심어주신 많은 추억들 ... 아직도 저는 임 할머니가 건강하셨을 때 길거리를 걸으시면서 빈깡통을 주우셔서 팔아 교회에 헌금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루는 깡통 주우시다가 넘어지셔서 팔의 깁스도 하신 기억도 납니다. 비록 글을 읽지 못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에 적힌바 교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순종하시려고 애쓰신 할머니, 꼭 십일조도 힘드신 가운데서도 꼬박꼬박 내시면서 저에게 자랑(?)삼아 말하셨던 임 할머니... 노인 아파트에 찾아 뵈 때마다 커피를 타주셨던 임 할머니, 오늘 저는 할머니의 빵도 쓰다듬어 드리면서 헤어지기 전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hug해 드렸습니다.

[2013. 3. 20.]



# 손톱깎이

2014년 7월 24일, 목요일 점심.

오늘 오랜만에 임봉희 할머니를 만나 보러 갔다. 교회 34주년 기념품 손톱깎이 세트를 가지고 할머니가 계신 양로원에 갔더니 침대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다(어쩌면 할머니는 그냥 눈을 감고 계셨을 수도). 나는 방안에 있는 의자를 할머니가 누워계신 침대 옆에 조용히 놓으려고 했는데 소리를 들으셨는지 할머니가 눈을 뜨시기에 반갑게 인사드리면서 의자를 침대 옆에 놓고 앉았다. 나는 할머니에게 교회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 드린 후 손톱깎이 세트를 보여드렸다. 그리고 나서 나는 할머니에게 손톱을 깎아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전에 할머니의 따님 한 분이 할머니의 손톱을 깎아드리다가 두 번이나 할머니의 손톱 주위 살점도 짤라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겁 없이(?) 그저 할머니의 손톱을 깎아드리고 싶어서 ‘제가 더 잘 깎아드릴 수 있어여, 할머니’ 라고 말씀 드린 후 할머니의 왼쪽 손톱부터 깎아 드렸다. 그런 후 또 나는 다른 도구(워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음)로 할머니의 손톱을 부드럽게 해드렸다. 적어도 왼쪽 손톱 깎이는 성공한 듯 했다.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의 오른쪽 손톱을 깎아 드리다가 손톱이 두꺼워서 손톱깎이에 잘 들어가지 않아 억지로(?) 하려다가 그만 할머니의 손톱 주위에 살점을 조금 자른 것 같았다. 깎을 때 할머니가 좀 놀라시고 아파하시는 것 같아 나는 할머니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따님보다 더 잘 깎을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 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나머지 오른쪽 네 손톱을 다 깎으려는 내 시도에도 가만히 계셨다. 어쩌면은 할머니는 지금 아무 것도 하실 수 없으셔서 그렇게 가만히 계신 것은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 산소 호흡기가 코에 끼어있지 않고 이마에 놓여 있었는데도 내가 ‘할머니, 이거 코에 끼야 하지 않아야’라고 여쭙었더니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코에 끼어드렸다. 스스로 거의 아무 것도 하실 수 없는 상태이신 것 같다. 이젠 할머니는 자신의 나이도 잊어버리신 것 같다. 내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92세시죠?’라고 여쭙었는데도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 ... 점점 더 쇠약해지시는 임봉희 할머니를 보면서 나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주님 사랑하시죠?’라고 말씀드렸다. 나는 할머니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등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할머니에게 질문을 드렸다가 보다 말씀을 드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그런 후 나는 할머니에게 우리

승리장로교회에서의 추억들을 말씀드렸다. 특히 할머니가 잘 기억하셔서 찾아 볼 때마다 종종 말씀하셨던 그 추억들을 할머니와 나눴다. 그 손으로 교회 부엌에서 쌀 네 솥을 열심히 씻으셨던 추억, 그 일로 인하여 할머니는 자기 손가락이 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내가 총각 전도사 때 할머니 부부도 교회 봉고차로 집에서 교회로 모셔오고 집에 모셔다 드리면서 할아버지가 나에게 언제 결혼할거냐고 물으셨던 추억도 할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시기에 나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제가 결혼한 지 이젠 벌써 17년이 지났어요’라고 웃으면서 말씀드렸다. 나는 할머니와 이런 저런 추억 이야기를 나누다가 할머니에게 천국에 가 계신 고 김영화 권사님(나의 친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이유는 임봉희 할머니가 고 김영화 권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기에 평생 잊지 못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임봉희 할머니께 주님께서 오라하시면 우리가 잠들어서(성경에서 우리 성도의 죽음을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후) 더 이상 질병과 고통과 외로움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고 김영화 권사님도 만날 것이며 고 임종환 할아버지(임봉희 할머니의 남편)도 만날 것임을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임을 말씀드린 후 나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하나님께 찬양 드린 후 할머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기도 후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까 왼쪽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오늘 나와 대화 속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세 번이나 하신 임봉희 할머니, 나는 그 할머니의 감사하는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의 이마에 뽀뽀해 드렸다.

[2014. 7. 26.]

## 양로 호텔 방문

교회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저는 사랑하는 김동윤 집사님과 김승관 집사님 부부가 계시는 양로호텔로 갔습니다. 먼저 김동윤 집사님이 계신 방으로 갔을 때 집사님은 침대에 누워서 눈을 뜨고 천장을 보시면서 라디오를 통하여 기독교 방송을 듣고 계셨습니다. 오늘 따라 왜 더 아파보이시고 더 늙어 보이시는지... ㅠㅠ 방을 들어서면서 집사님이 누워 계신 침대 앞에 의자 하나가 있어 거기에 앉아서 인사드렸더니 두 손을 내밀어 내 오른손을 꼭 잡으시길래 저도 왼손까지 들어 두 손으로 집사님의 두 손을 힘차게 잡았습니다.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는 집사님, 약 때문인지 머리가 너무나 어지러우셔서 75세의 젊은 연세(?)에 이렇게 누워계십니다. 집사님과 이런 저런 대화하다가 집사님은 이미 천국에 가 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집사님의 아버님이 집사님과 집사님의 형을 데리고 내려오시면서 신발도 없고 얼음과 같은 곳에서 아버님이 자기를 업어 주셨던 그 때 그 순간을 기억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는 돌아가신 아버님이 많이 그리우신지 눈물이 글썽하셨습니다. ㅠㅠ 그리고 저희 교회 한 달에 한번 오실 때마다 저희 어머니(두 분이 같은 연세이심)를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신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뭉클한 만남이었습니다. 전에도 양로원이나 중환자실에 할머니들을 방문할 때 느꼈던 거지만 어르신들이 그 힘든 상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워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들어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가 없는 듯합니다. 집사님과 헤어지기에 앞서 저는 집사님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하니깐 집사님은 자기의 두 손을 제 손 위에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 기도 후 집사님의 방문을 나서는데 계속해서 손을 흔드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후 에 저는 옆 동 건물에 계신 김성관 집사님과 김양숙 권사님이 계신 방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권사님이 나오셔서 문을 열어 주시길래 옆방에 계신 김성관 집사님의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들어갈까요 말씀드렸더니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하셔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보니 김승관 집사님이 마스크를 쓰시고 침대에 누워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많이 앓잖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방에 따님도 와 계시기에 저는 집사님께 다가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집사님의 믿음과 소망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후 저는 권사님과 따님의 잠시 앉으시지요 라는 말씀을 듣고 뛰쳐나오다 시피 했습니다 ㅋㅋ 3-5분 짧은 만남이었지만 7년 동안 저희 교회 나오시던 두

분이 이렇게 양로호텔을 옮기셔서 교회에서 멀어져서 한 달에 한번만 나오시려고 하시는데 그것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다음 주일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으니...

[2013년 9월 29일 주일 오후]



## 편안히 잠드신 고 이진구 성도님

오늘 주일 영어 예배를 마친 후 부엌 앞에서 장로님에게 이진구 성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전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심 시간 때에도 이진구 성도님의 따님이신 김은희 집사님에게 이진구 아버님이 어떠하신지 여쭙보았었는데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놀랐습니다. 부랴부랴 성경책을 들고 이진구 성도님의 막내 아드님이 이석우 집사님의 집으로 운전해서 갔습니다. 도착해서 이진구 아버님의 방으로 들어가 보니 의자에서 누워서 고이 잠드신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을 만져보니 아직 온기가 있지만 좀 차가웠습니다. 이렇게 주무시다가 숨을 거두신 모습을 보면서 김은희 집사님과 이석우 집사님 부부와 그 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이진구 아버님의 시신 옆에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이진구 성도님의 부인이신 고 최정호 권사님도 돌아가셨을 때 권사님의 시신 옆에서 이석우 집사님 부부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약 22개월 전에 ...).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고 이진구 아버님을 사랑하시사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아버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계속 해서 기도해 오셨는데 약 2년 전 부인되시는 권사님의 장례식 때 하나님께서 고 이진구 아버님의 마음의 역사하시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게 된 이진구 아버님은 그때 장로님과 함께 집으로 찾아 뵈서 세례를 베풀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 이진구 아버님의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케 하시사 세례를 받게 하시사 이렇게 약 2년 후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도 편안히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과 경배를 드렸고 앞으로 장례식 예배 때도 그리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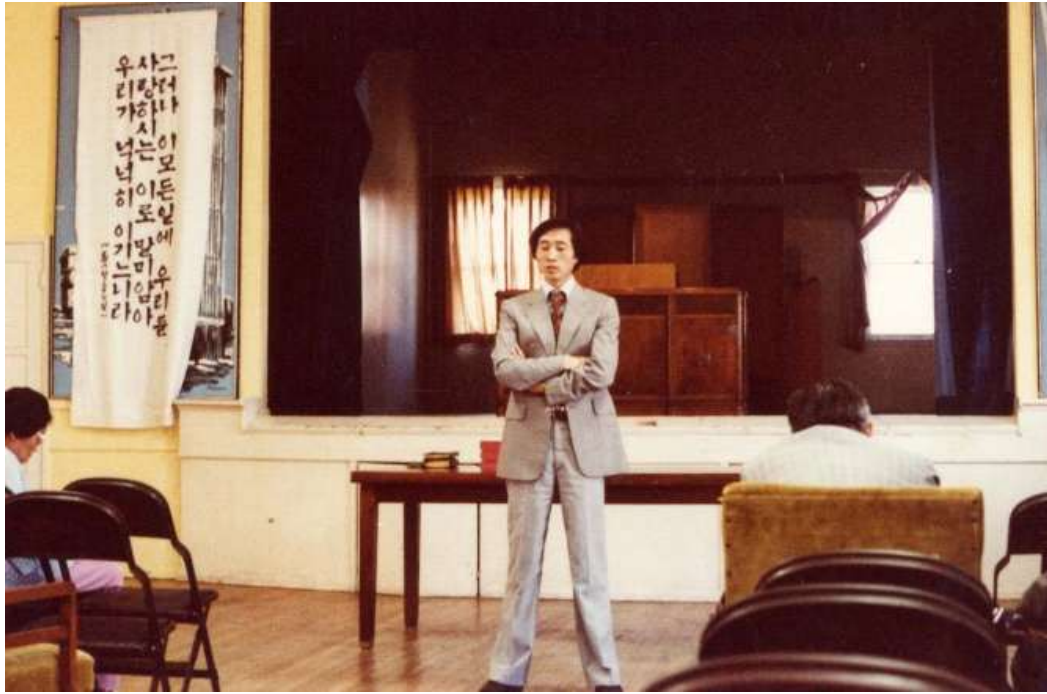
[2014. 8. 11.]



## 큰 고모부

오늘 주일 아침, 교회 가기 전에 큰 고모부가 누워 계신 양로원에 들렀다. 언제 숨을 거두실지 몰라서,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 도착해서 방에 들어가 보니 큰고모부의 막내딸인 사촌 여동생이 혼자 의자에 앉아있었다. 아빠 옆을 그리도 지키고 싶어서 밤까지 아빠 옆에서 세는 사촌동생, 많이 염려가 되었는데 잘 이겨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였다. 나는 그녀의 배려로 큰 고모부 옆으로 가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시는데도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의 가슴에 내 손을 얹고 마음속을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런 후 지난 주일처럼 주일 교회 사역을 다 마친 후 다시 큰 고모부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교회에 도착해서 가족 카카오톡 방을 통하여 큰 고모부의 혈압이 매우 낮다는 소식을 접해들고 나는 의사이신 교회 장로님께 여쭙었다. 큰 고모부를 삼촌처럼 여기시는 장로님의 말씀은 오늘이 고비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오후에 드리는 영어예배 때에도 혹시나 해서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예배드리기 전까지 수시로 가족 카톡 방에 글이 올라왔는지를 점검했다. 예배 후 이미 점심 식사 시간에 양로원에 다녀오신 장로님께서 임종하실 것 같다고 말씀하시어서 나는 성경책을 든 채로 곧장 양로원을 향했다. 많은 가족 친척 식구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래서 장로님과 나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러던 중에 예배를 인도하시던 작은 고모부 목사님께서 승리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설교 후 예배를 계속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어서 순종하였다. 나는 큰고모부의 왼손을 잡고 하나님께 힘차게 기도했다. 그런 후 주기도문을 하였는데 마치자마자 사촌이 자기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간호사에게 가서 청진기로 심장이 뛰는지 점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청진기를 찾아서 부랴부랴 와서 심장과 눈 등을 점검하더니 숨을 거두셨다고 말해주었다. 이렇게 큰 고모부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다. 유언에 장례 절차를 승리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나에게 위임하셨다고 큰 고모님이 말씀하셨다. 셋째 삼촌 목사님이 잠드시기 전에 나에게 입관 예배 인도를 부탁하시면서 설교 본문까지 주셨는데, 이렇게 큰 고모부님도 ... 하하. 장의사에서 시신을 가지러 왔다. 다시 한 번 편안히 잠든 큰 고모부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마와 뺨과 손을 만졌다. 차가워졌다. 손은 아주 하얗다.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큰 고모부 ...'

[2015년 8월 16일, 주일]



## 주신 때를 놓치지 말아야 ...

주일 아침, 사랑하는 큰 고모부가 누워 계신 양로원에 들렸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치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숨이 많이 고르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손을 고모부의 가슴(심장)에 얹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조금 전 한국어 예배를 마친 후 가족 카톡 방에 적혀 있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큰 고모부의 식구들, 자녀들과 손주들 등이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할아버지에게 귀에 다가 마지막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멀리 이집트에 선교하고 계신 막내 삼촌도 카카오톡으로나마 '고맙고 사랑한다고요'라는 마지막 말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글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매형을 보시려고 일부러 이집트에서 내일 여기에 오시는데 ...

그 때까지 큰 고모부님이 살아계실지 ...

몇 년 전에도 막내 삼촌은 인도에서 선교하고 계실 때 셋째 삼촌이 암으로 잠드시기 전에 뵈려고 비행기 타고 오시는 중에 돌아가셔서 결국은 장례식에만 참석하시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셨었는데 ... 어쩌면 이번에도 ... 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전도서 3장 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4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8절).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닌데,

용서할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닌데, 용서를 구할 때도 항상 있는 것은 아닌데 ...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놓치지 말아야 ...

[2015. 8. 17.]

# I will miss him.

어제 토요일 저희 교회 어르신 한분의 임종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계속 찬양을 드리다가 저는 그 어르신의 가족 친척 식구들에게 호스피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르신께 가까이 다가가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시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시는 부인 권사님께서 많이 우시면서 남편의 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그 어르신을 어머니와 함께 오랫동안 병간호한 외동딸 자매가 울면서 사랑하는 아빠에게 마지막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의식이 없으신 어르신에게 다들 한마디씩 한 후 우리는 그 병실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임종예배 후 가족 식구 외에는 그 호스피스를 다 떠났는데 한 3시간 후에 그 자매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편안히 잠드셔서 하나님의 품안에 안기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카카오톡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감사했어요. 부탁드립니다 때마다 오셔서 찬양과 말씀으로 아빠와 저희가정에 마음에 위로 되어주셔서 아빠를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편안히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마지막 아빠에 모습,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기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 감사 하였습니다. 오늘 주일 이젠 준비하고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다방 커피를 들고 교회 본당 맨 뒤에 앉으면 사랑하는 그 어르신의 빈자리가 생각 날 것 같습니다. 성가대 맨 뒷 자석에서 사랑하는 따님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시던 모습이 생각날 것입니다. I will miss him.

[2016. 11. 21.]



# 최분남 할머니

부활 주일 연합 예배 후 서로 인사하고 악수할 때 제가 80이 넘으신 최분남 할머니에게 다가가 할머니에게 인사드리려고 하니까 저의 얼굴을 보시면서 할머니가 '주님께서 나를 언제 불러 가지려고 하시는지 몰라?'라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남편분도 오래 전 돌아가셨고 여섯 자제분들 중 두 분도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 같이 살던 아드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깨우려고 했더니 싸늘한 시신이 되어 통곡하시는 최 할머니, 그 아드님의 장례(추모) 예배 후 저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라고 하셨습니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 여섯 중 셋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마음.... 그런데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 후 천국에 가고 싶어 하시는 최 할머니의 미소를 생각하니 기쁩니다.  
[2013. 4. 1.]

## 고 최분남 할머니를 기억하면서

"제가 간 곳은 저희 교회 최분남 할머니(집사님)이 사시는 아파트였습니다. 못 만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아파트 단지 뜰에서 찾아뵙고 할머니와 함께 할머니가 사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서 식탁에 가지고 오신 후 먹다 남은 녹두지짐 하나를 치우고 그 밑에 있는 새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식욕도 없으셔서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머리가 어지럽고 고통이 너무 많으셔서 사는 것보다 죽는데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에게 저는 '고통이 없고 외로움도 없고 슬픔과 죽음이 없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는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그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할머니, 예수님을 믿으시죠?'라고 여쭙었더니 할머니는 '믿어요'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고백을 듣고 의자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가 두 손을 어깨에 얹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런 후 할머니와 헤어져 문 앞으로 걸어가는데 할머니가 쫓아 나오시려고 하면서 "목사님"하시 길래 저는 다시 할머니에게 다가가 포옹(hug)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제 품에 기대시고 우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꼭 껴 안아드렸습니다."  
[2017. 9. 5.]



# 결론

우리 모두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결혼식보다 장례식에 가기를 더 좋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봐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선 우리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배우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고히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 때에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생명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 우리의 죽을 각오도 하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신실하게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더욱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사명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한 알의 밀알이 돼야 합니다.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 감수하되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들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간절히 기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존귀케 하되 우리는 죽기 전에 용서할 사람을 다 용서하고 화해할 사람과 다 화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여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후회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사랑할 시간 밖에 없음을 더욱더 깊이 많이 깨달아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과 교회 식구들과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오라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수고를 다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식구들과 이웃들과 잘 이별한 후 주님 품안에 안겨 평안히 잠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 중심된 삶이 우리 가족과 교회 식구들 및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